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7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김 남 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7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김 남 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박찬국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실을『철학사상』별책 제2권 제1호~제14호, 별책 제3권 제1호~제25호로 출간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피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해 일차로『철학사상』별책 제5권 제1호~제14호를 펴냈다. 이제 이 후속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을『철학사상』별책 제7권 제1호~제25호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6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장 /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중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7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김 남 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머 리 말

이 글은 철학사상연구소의 토픽 맵 프로젝트에 따라 파르메니데스 『단편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 해설을 부친 것이다. 프로젝트의 대체적인 체제에 따라 저술과 저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해당 저술의 주요 개념을 인용하고 설명을 부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8개 내외의 개념에 관해 인용하고 설명을 붙이는 것이 통상의 예이나, 이 책에서는 ‘길’, ‘존재’, ‘엘렐코스’ 세 개의 개념에 관해 인용되고 설명이 덧붙여졌다. ‘진리’, ‘의견’, ‘설득’ 등의 개념에 관해서도 이런 작업이 가능할 것이나 앞의 개념들에 관해 인용하는 부분에서 함께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인용되고 설명이 붙여진 개념들에 관해서는 기왕에 본인이 쓴 논문에 근거하여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 작업을 하는 데에는 박사과정의 유재민 군의 도움이 컸으며 여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6년 5월

김남두

목 차

제1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파르메니데스의 생애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2
1.3 생애 연보	5
1.4 저작	5
1.4.1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5
2.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해제	7
2.1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요약	7
2.2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해설	8
2.2.1 문헌 전승	8
2.2.2 호메로스로부터의 영향	9
2.2.3 파르메니데스 『단편들』의 구조	10
2.3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상세 목차	11
2.4 주요 용어	12
2.4.1 길	12
2.4.2 존재	13
2.4.3 엘렐코스	14
제2부 철학 지식지도	17
1. 철학자 지식지도	17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18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19
3.1 길	19
3.2 존재	20
3.3 엘렐코스	21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22
 제3부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내용 분석 연구	25
1. 길	25
1.1 도입	25
1.2 길의 분석	26
1.2.1 이야기 풍성한 여신의 길(hodon poluphemon daimonos)	26
1.2.2 낮과 밤이 갈리는 길, 정의의 여신이 지키는 길	27
1.2.3 사람들의 발자취에서 멀리 떨어진 길, 그러나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	28
1.2.4 탐구의 유일한 길들(hodoi mounai dizesios)	29
1.2.4.1 탐구의 길	30
1.2.4.2 ‘있다’의 길과‘있지 않다’의 길	31
1.2.4.2.1 ‘있다’와‘있지 않다’의 두 길만 있는 이유	31
1.2.5 가야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	32
1.2.6 비존재의 길, 가사자들의 길	34
1.2.6.1 ‘있다’, ‘있지 않다’의 주어를‘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	34
1.2.6.2 ‘있지 않다’는 길의 사유 불가능성과 언표 불가능성	35
1.2.6.3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유를 차단해야 할 길	37
1.2.6.4 ‘있다’와‘있지 않다’를 뒤섞는 가사자들의 길	38
1.2.6.5 선언논변으로서 단편 2-7의 검토.	41
1.2.6.6 선언 논변과 존재의 길의 연관	42

1.2.7 파르메니데스에서 길의 성격	44
1.2.7.1 ‘있다’는 길의 적극적인 성격	44
2. 존재(to on)	46
2.1 존재와 진리, 존재와 앎	46
2.2 to on의 의미, 여러 입장들 개관	47
2.3 존재의 표지들	48
2.3.1 영원한 현재로서의 존재; 존재의 초시간성	50
2.3.2 생성 소멸하지 않음	51
2.3.3 존재의 불가분성	54
2.3.4 존재의 불변성, 부동성, 완전성	55
2.3.5 구형의 완전한 존재	56
3. 엘렐코스(elenchos)	58
3.1 테스트로서의 엘렐코스	58
3.1.1 엘렐코스 개념의 역사	58
3.1.2 여신의 명령의 로고스적 성격	59
3.1.3 여신의 명령의 신화적 성격	60
3.1.4 많은 싸움을 담고 있는 말과 새로운 실정적 힘	61
참고문헌	65

일 러 두 기

이 책에서 사용한 파르메니데스 『단편들』의 한국어 번역본은 몇몇 개념어들의 번역어를 제외하고는(번역 용어가 다른 경우에는 내 것을 앞에, 강철웅의 것을 [] 안에 명기하였다.), 2005년에 아카넷에서 출판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의 강철웅의 번역을 사용하였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파르메니데스의 생애

1.1 생애 요약

파르메니데스(Parmenides)의 생애와 활동에 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후대의 전승을 통해서이다. 후대의 전승 가운데에서도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 두 전승하는 문헌들도 파르메니데스의 출생년도와 활동시기에 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지 않는다. 먼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그의 책(IX 21-3)에서 파르메니데스의 전성기가 69회 올림피아드(BC 504-501년)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고에 따르면 그의 생년은 540년경이 된다. 이와 달리 플라톤은 그의 후기 저술인 『파르메니데스』(127a)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아테네를 방문했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65세였던 파르메니데스가 젊은이(meirakion)인 소크라테스와 대담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한창때의 젊은이로 그려진 소크라테스를 20세로 본다면 아테네에서 그들의 만남은 BC 450년경이 되며, 따라서 파르메니데스는 BC 515년경 탄생한 것이 된다.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를 직접 만나고 그를 묘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파르메니데스에 대한 플라톤의 묘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이상의 논의는 Gallop, 3-4쪽 참조.)

기타 여러 후대의 전승을 통해 종합해 보면 파르메니데스는 이오니아의 포카이아인들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된 후에 남부 이탈리아에 새로

개척한 도시 엘레아의 이주민 2세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유한 귀족 출신으로, 크세노파네스의 제자였으며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파르메니데스가 크세노파네스의 제자였다는 것은 테오프라스토스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받아 전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언명은 플라톤의 『소피스트』편(242d)에서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르메니데스에게서는 분명 크세노파네스의 신관 및 인식론으로부터 영향 받은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파르메니데스가 육각운으로 저술한 것도 자신의 생애 후반기를 남부 이태리에서 보냈던 크세노파네스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오랜 전승에서 보고된 것으로 사실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사상에서 피타고라스학파로부터 영향 받은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DK, A12) 그는 철학자가 현실 생활에 무능하며 소용이 없는 존재라는 비난을 받증하기 위해 엘레아의 법제정 작업을 했다고 전해진다.

1.2 생애 해설

파르메니데스(Parmenides)의 생애와 활동에 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문헌의 저술 시기는 6-7세기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저술 가운데 앞선 시대의 것인 플라톤의 저술조차도 실제 파르메니데스의 활동 시기와 1세기 이상의 시간상의 거리가 있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스의 생애에 관한 것은 추정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다음의 두 구절이 흔히 파르메니데스의 생애를 추정하는 데 토대가 되고 있다.

① 플라톤 『파르메니데스』 127a(DK, 29A11)

“안티폰의 이야기에 따르면 퀴토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이 대(大) 판아테나이아에 참여하기 위해 한차례 아테네에 온 적이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대략 65세로 상당히 연로했고 아주

백발이었으나 기품 있는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제논은 그때 40세에 가까웠으며 키가 흰칠한 호남이었는데 파르메니데스의 애제자였다고 한다. 그들은 도성 밖 케라미코스에 있는 퀴토도로스의 집에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소크라테스와 몇몇이 제논의 논고를 들으려고 갔다. 왜냐하면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이 논고를 아테네로 처음 가져왔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직 젊은이었다.”

②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IX, 21-3 (DK, 28A1)

“퀴레스의 아들 엘레아의 파르메니데스는 크세노파네스의 제자였다.(테오프라스토스의 요약에 따르면 크세노파네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였다.) 그러나 그가 크세노파네스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그를 따르지는 않았다. 소티온이 보고했듯이 그는 피타고라스학파의 아메이니아스와 교류했다. 디오카이타스의 아들 아메이니아스는 가난했으나 고결한 사람이었으며 파르메니데스는 그를 따랐다.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고 부유했던 파르메니데스는, 아메이니아스가 죽었을 때, 사당을 지어 바쳤다. 파르메니데스가 명상적 삶에로 전향했던 것은 크세노파네스 보다는 아메이니아스 때문이었다. 그는 69회 올림피아드(BC 500년경) 때에 활동의 절정기였다고 전해진다. [...] 스페우시포스가 그의 저술 『철학자들에 관하여』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는 또한 엘레아의 시민들을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고 전해진다.”

플라톤의 보고에 근거해 보건대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이 아테네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거기서 젊은 소크라테스를 만났다는 보고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플라톤이 그들의 나이에 관한 묘사가 꼭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의 나이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그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글을 썼다는 점은 추정할 수 있다. BC 399년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할 당시 소크라테스의 나이는 70세요, 따라서 그의 출생년도는 470/69년이 된다. 인용된 본문의 *spodra neon*이라는 말이 ‘대단히 젊은’의 의미를 가지므로, 소크라테스가 20세경이라고 친다면 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450년경이 된다. 이때 65세로 이야기된 파르메니데스의 출생년도는 BC 515년이 되며 제논은 490년경이 출생년도가 된다. 하

지만 이는 두 번째 인용문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보고와 맞지 않는다. 그의 보고는 아마도 엘레아의 식민도시 건설이 BC 540년이라는 아폴로도로스의 보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절정기(floruit)를 보통 40세 전후로 잡는 만큼, 아폴로도로스는 BC 540년을 크세노파네스의 절정기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파르메니데스는 크세노파네스의 절정기에, 그리고 제논은 파르메니데스의 절정기에 출생한 것으로 설정된다.

파르메니데스가 어떤 이전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래된 원전 문헌들에서 그는 피타고라스학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파르메니데스는 피타고라스학파인 아메이니아스라는 사람과 교류했다고 한다.(DK, A1) 아메이니아스는 파르메니데스를 피타고라스 학파적인 ‘은둔생활’으로 전회시켰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가 자신이 태어난 도시 엘레아에 훌륭한 헌법을 제정해 주었다는 보고로 보건대 그의 생애가 아주 은둔적인 것이었을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파르메니데스의 사상 속에서 피타고라스학파의 영향을 받은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다른 문헌들에서는 그가 크세노파네스의 제자라고 전해져 왔다.(DK, A1, A6-7, A22) 이 주장은 아마 플라톤의 저술 『소피스트』편에 나오는 언급(242d)을 오해한 데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에는 분명 크세노파네스의 신관 및 인식론으로부터 영향 받은 자취를 찾을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가 자신의 글을 육각운으로 저술한 것도 자신의 생애 후반기를 남부 이태리에서 보냈던 크세노파네스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DK, A12) 그는 철학자가 현실생활에 무능하며 소용이 없는 존재라는 비난을 반증하기 위해 법제정 작업을 했으며, 매년 취임하는 공직자들은 그가 만든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한다. 파르메니데스에 관한 모든 주석과 전승은 그 자신이 쓴 서사시에 근거하고 있다. 그의 시의 주제가 난해하여 그가 육각운의 형태를 취한 사실은 특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음유시인이라고 생각되는 크세노파네스를 그가 따랐으리라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플루타르코스는 파르메니데스가 산문의 평이함을 피하기 위해 서사시 형태가 지니는 운과 권위를 일종의 ‘그릇’(carriage)으로 사용했으리라는 시사를 했다. 이는 파르메니데스가 자신의 주제가 재미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운과 비유의 옷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아마도 파르메니데스가 신의 계시로 생각했던 자신의 주장을 담을 유일한 수단이 서사시 형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좀 더 그럴듯한 추측이 될 것이다.(이상 KRS, 239-240쪽 참조.)

1.3 생애 연보

① 플라톤의 보고를 근거로

기원전 515년 남부 이탈리아 엘레아에서 출생

475년경 전성기.

449년 제논과 함께 아테네를 방문하여 젊은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눔.(소크라테스의 나이 20세)

②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보고를 근거로

기원전 540년 남부 이탈리아 엘레아에서 출생.

500년경 전성기.(69회 올림피아드)

1.4 저작

1.4.1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한국어 표준본 : 김인곤 외 옮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아카넷, 2005년

- 영어 표준본 : Coxon, A. H. (1986), *The Fragments of Parmenides: A Critical Text with Introduction, Translation, the Ancient Testmonia and a Commentary*, Assen: Van Gorcum
- Gallop, D. (1984), *Parmenides of Elea, Fragments: A Text and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원어 표준본 : Diels, H. & W. Kranz [=DK] (1952),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Vols. I, II, III, 6th ed., Berlin: Weidmann [1st ed.: 1903]

2.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해제

2.1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요약

파르메니데스 『단편들』에서 우리는 단편 전체의 구조와 진행을 알려주는 몇 구절을 집어낼 수 있으며, 이 구절들에 따라 단편 전체의 구도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단편 전체는 우선 크게 일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시인 자신의 이야기 부분과(fr.1.1-25) 여신이 시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여신의 이야기 부분(fr.1.26-19.3)으로 나뉜다. 여신의 이야기는 서시라고 이야기되는 단편 1의 26행부터 시작된다. 여신의 이야기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뉠 것임을 명시하면서 시작한다. 여신은 자신을 찾아 온 파르메니데스가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panta)을 들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두 부분이란 여신의 표현에 따르면 ‘설득력 있는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가슴’(aletheies eupeitheos atremes etor, fr.1.29)과 ‘가사자들의 의견’(broton doxas, fr.1.30)이다. 즉 여신이 이야기할 부분은 진리(aletheia)의 부분과 가사자들의 의견(doxa) 부분으로 나뉜다. 따라서 단편 1에서 여신이 말하는 설득력 있는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가슴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편 2에서 8.49까지이며 그 이후부터 끝까지가 의견 부분이 된다.

단편 2에서 8.49에 이르는 진리 부분은 다시 상당히 분명한 논의 구조를 보여준다. 단편 2에서 두 개의 길이 제시되며, 두 길 가운데 두 번째 길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길로 배움이 불가능한 길이라 이야기된다. 단편 6과 7에서는 또 다른 길로 가사자들의 길이 이야기된다. 이 길은 멀리해야 할 길로 이야기되고서 그 부정적 측면이 서술된다. 이어 단편 8의 서두에서 이제 오직 하나의 길의 이야기만 남아 있다고 이야기되면서 8.49까지 ‘있다’의 길, 존재의 길이 논의된다. 전체적으로 세 길이 제시되고서 두 길은 따를 수 없고, 따르지 말아야 할 길로 제거되고 하나의 길이 남는 논의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진리 부분은 단편 2에서 7까지 진리의 길에 이르는 논의 과정과 단편 8에서 이야기되는 진리의 길의 두

부분이 구분될 수 있다.(김남두, 「파르메니데스에서 탐구의 길과 존재의 규범적 성격」 참조.)

2.2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해설

2.2.1 문헌 전승

파르메니데스의 글은 동시대의 많은 저자들의 경우처럼 저술의 형태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저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딜즈가 편집하고 크란츠가 증보한 단편들의 모음이다. 19세기말 독일의 고전문헌학자 딜즈가 고대 그리스철학사의 강의를 위해 후대 여러 저자들의 저술에 인용되거나 언급된 구절들을 모아 단편 모음을 편찬했다. 이 단편집이 이후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과 소피스트들의 철학을 연구하는 데 표준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해당 저자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이나 저술의 paraphrase들을 ‘A’ 단편으로, 직접 인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B’ 단편으로 묶었다. DK에 제시된 단편들의 배열은 딜즈가 생각하는 단편들 원본의 내용상의 순서이다.

파르메니데스의 텍스트는 대단히 잘 보존된 편이다. 그의 저작의 텍스트를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사람은 기원후 6세기 사람인 심플리키오스이다. 심플리키오스는 파르메니데스의 저술의 핵심이라 할 주요 부분을 광범위하게 인용했다. 그가 파르메니데스의 저술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용했던 것 자체가 이미 당시에 찾아보기 어렵게 된 파르메니데스의 저술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심플리키오스 자신이 서술하고 있다. (dia ten spasin tou Parmenidou syngrammatos, cf. testimonia. 213) 심플리키오스는 현존하는 단편의 2/3를 인용하고 있다. 전 단편의 반을 차지하는 그의 인용문의 3/4은 심플리키오스의 인용 이외에는 남아있지 않다. 즉 그의 전해오는 단편들 전부의 절반가량이

오로지 심플리키오스의 문헌을 통해서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파르메니데스 문헌의 전승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가늠할 수 있다. 그의 문헌은 상태가 매우 좋으며 플라톤 이후 전해 내려오는 아카데미의 문헌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재구성하는 데 이 단편들이 전해오는 저술의 수고(manuscript) 전승 상태가 좋을 뿐 아니라 이를 인용한 저자의 인용문에 대한 토론과 요약문(paraphrase)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다행스런 점이다. 나아가 단편들의 1/4 이상이 한명 이상의 저자를 통해 전해지며 심플리키오스가 인용하는 구절을 그가 두 번 이상 수차례 인용하고 있는 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자주 나타나는 텍스트의 훼손은 파르메니데스의 텍스트에 기인한 것이기보다는 중세 수고들의 전승에서 기인하는 것들이다. 텍스트들의 달리읽기 부분들도 기억에 의해 인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로 보인다.

딜즈가 스스로 편찬한 *Poetarum Philosophorum Fragmenta*(Berlin, 1901)에서 열거한 파르메니데스에 관한 인용의 거의 완전한 목록은 파르메니데스 『단편들』이 16명 이상의 저자들로부터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대체적인 시대 순에 따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테오프라스토스, 에우데모스, 플루타르코스, 소라노스, 갈레노스, 섹스토스 엠피리코스,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코스, 플로티노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이암블리코스, 프로클로스, 다마스키오스, 암모니오스, 심플리키오스이다. 이 리스트에 바실(Basil)의 *Hexahemeron*에 나오는 주석가의 인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 구절은 DK의 3판 이후에 단편 16으로 수록되었다.(이상 Coxon 1-7쪽 참조.)

2.2.2 호메로스로부터의 영향

파르메니데스의 남아있는 150행에서 55단어 정도가 비 호메로스적인 단어이다. 이 가운데서 5개는 다시 직접 호메로스가 썼던 단어와 연결되거나

그가 썼던 것을 결합한 것이다. 엠페도클레스가 그랬던 것과 같은 낯선 단어의 도입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없다. 새로운 형태의 단어는 대체로 운을 맞추기 위한 것들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이 해당한다. 우선 주체가 산문적 말투(diction)여야 하는 지점에서 파르메니데스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떠나고 있다.(예; ageneton, krisis, diaireton, pephatismenon, hekastote, [...]) 또한 그가 이오니아 식(Ionic form)을 취하는 경우나, 학문적 논점(scientific point)을 제시하기 원하는 경우, 또한 그에게 서사시 모델(epic model)이 없을 때 그의 언어는 이오니아 식을 취한다.

파르메니데스는 그의 용어법과 imagery의 대부분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뒤세이아』에서 가져왔다. 이는 서시, 시의 철학적 부분과 자연학적 부분 모두에 타당하다. 파르메니데스의 시에서 열 곳 이상의 구절에서 우리는 호메로스의 용어법이나 imagery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이외의 어떤 다른 알려지지 않은 모델이 파르메니데스 시의 모델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딜즈가 말하듯 파르메니데스는 호메로스의 시를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자유롭게 변형시켜 이용하고 있다.(Coxon 7쪽 참조.)

2.2.3 파르메니데스 『단편들』의 구조

앞서 말한 대로 단편 전체는 우선 크게 일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시인 자신의 이야기 부분과(fr.1.1-25) 시인에게 이야기하는 여신의 이야기 부분(fr.1.26-19.3)으로 나뉜다. 여신의 이야기는 서시라고 이야기되는 단편 1의 26행부터 시작된다. 여신의 이야기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뉠 것임을 명시하면서 시작한다. 여신은 자신을 찾아 온 파르메니데스가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panta)을 들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두 부분이란 여신의 표현에 따르면 ‘설득력 있는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가슴’(aletheies eupitheos atremes etor, fr.1.29)과 ‘가사자들의 의견’(broton doxas, fr.1.30)이다. 즉 여신이 이야기할 부분은 진리

(aletheia)의 부분과 가사자들의 의견(doxa) 부분으로 나뉜다. 이 두 부분이 어디서 나뉘는지를 여신이 단편 8.50-53에서 스스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fr.8.50에서 여신은 이제 진리의 이야기가 끝나고 가사자들의 의견이 시작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단편 1에서 여신이 설득력 있는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가슴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편 2에서 8.49까지이며 그 이후 끝까지가 의견 부분이 되겠다. 딜스의 단편 배열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른바 진리 부분에는 단편 8에서 시작되는 ‘있다’의 길뿐 아니라 단편 2에서 단편 7까지도 포함된다. 단편 2에서 8.49에 이르는 진리 부분은 다시 상당히 분명한 논의 구조를 보여준다. 단편 2에서 두 개의 길이 제시되며, 두 길 가운데 두 번째 길이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길이라 이야기된다. 단편 6과 7에서는 또 다른 길로 가사자들의 길이 멀리해야 할 길로 이야기된 후, 단편 8의 서두에서 이제 오직 하나의 길의 이야기만 남아 있다고 이야기되면서 8.49까지 ‘있다’의 길, 존재의 길이 논의된다. 전체적으로 세 길이 제시되고서 두 길이 따를 수 없고, 따르지 말아야 할 길로 제거되고 하나의 길이 남는 논의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진리 부분은 단편 2에서 7까지 진리의 길에 이르는 논의 과정과 단편 8에서 이야기되는 진리의 길의 두 부분이 구분될 수 있다.

2.3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상세 목차

1. 서시(proem); fr.1

1.1 여신의 거소에 이르는 여정; fr.1.1-21

1.2 여신의 영접하는 말; fr.1.22-32

2. 진리의 길; fr.2, 3, 6, 7.

2.1 두개의 길과 비존재의 길의 탈락; fr.2

2.2 존재와 사유의 일치; fr.3

2.3.1 말할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 fr.6.1-2

2.3.2 가사자들의 방황하는 길; fr.6.3-9, fr.7

3. 실재의 성격; fr.8

3.1 존재의 표지들; fr.8.2-6

3.2 실재의 초시간성; fr.8.5-6, fr.8.19-20

3.3 실재의 불가분성; fr.8.22-25

3.4 실재의 불변성과 완전성; fr.8.26-33

3.5 논의 요약; fr.8.34-41

3.6 구형과 같은 실재; fr.8.42-49

4. 의견의 길; fr.8.51-61, fr.9-19

4.1 도입; fr.8.51-61

4.2 의견들; fr.9-19

2.4 주요 용어

2.4.1 길

19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파르메니데스의 글은 흔히 크게 서시 부분과 진리의 길, 의견의 길로 나뉘어 논의된다. 이 세 부분은 모두 길의 메타퍼를 담고 있으며 길의 개념이 서술의 골격을 형성한다. 서시에서는 여신을 찾아가는 화자의 여정이 그려진다. 그는 태양신의 딸들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간다. 길의 모티브가 도입부를 이루는 서시부터 이미 대단히 두드러진다. 여신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도 역시 두개의 길을 나누면서 시작된다. 존재의 길과 비존재의 두 길이 구분되고 이 가운데 비존재의 길이 각하된다. 그것이 말할 수도 지시할 수도 없는 것, 따라서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서 각하의 이유가 주어진다. 이어서 존재는 fr.3에서 사유될 수 있는 것과 등치되며, fr.6에서는 말해질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으로 언명된다.

사유될 수 있는 것으로 존재의 길과 비존재의 길이 구분되고 비존재의 길의 언표와 사유불가능성으로 인해 탈락된 후 이 두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섞는데서 비롯되는 가사자들의 해매는 길이 언급되고 가서는 안 될 길로 언명된다.

존재와 비존재를 분명히 구분하는 데에서 성립하는 존재의 길에서는 이 존재의 길의 이정표라 할 수 있을 표지들이 언급되는데 단편의 중심 부분이라 할 수 있을 fr.8에서 이 표지들의 성격이 논의된다. 이 부분은 엄격한 연역적 논변을 통해 진행되며 바로 이 점이 진리의 길의 핵심 성격으로 부각된다.

fr.8의 종반부와 이어지는 fr.9-19에 의견의 길, 가사자들의 의견이 제시된다. 이런 길의 성격을 밝히고 분명히 하는 작업이 파르메니데스 사상의 특징과 파르메니데스 이후 전개되는 서양철학의 성격을 밝혀주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4.2 존재

존재는 고대 그리스어의 *to on*의 번역어로 현대 서구어로 *being*, *Sein*, *l'être*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인도 유럽어와 달리 존재사와 계사가 구분되는 우리말에서는 ‘있음’, ‘있는 것’, ‘임’, ‘인 것’ 등의 상이한 번역가능성이 존재한다. 존재라는 번역어는 영어로 *existence*를 뜻하는 만큼 특정 의미를 선택하는 번역어이나 이 글에서는 위의 네 가능성 전체를 포괄하는 표시어로 사용된다.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존재와 비존재, 진리와 의견, 실재와 가상 등을 선명하고 혼동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이런 그의 분명한 구분이 이후 서양철학의 기본적인 구분이 되면서 서양 형이상학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지은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위에 제시된 개념들이 혼동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를 처음으로 논

리적 서술을 통해 제시한 데에서 그의 작업의 특징이 이야기 될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비존재의 불가능성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존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비존재는 말할 수 없고 사유할 수 없으며 지시할 수 없는 것으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따라서 탐구의 대상에서 탈락시킨다. 오직 존재만이 남는 세계가 그의 실재가 되고 진리가 된다. 이런 존재의 조건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이 존재의 표지들(semata)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연역적 논증 과정을 통해 이 존재들이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넘어서 있고, 불변, 부동의 것이며 완전하고 불가분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존재가 구형의 둥근 형태로 모든 곳에서 균질적이라는 성격도 부여하는데 고도의 추상성을 보이는 그의 사고가 자연철학자들의 물리적 세계와의 사유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2.4.3 엘렝코스

엘렝코스는 우리말로 흔히 논박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이 개념은 소크라테스의 철학 활동을 특징짓는 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대철학에서는 Karl Popper가 과학 활동의 핵심으로 추측(conjecture)이라는 개념과 함께 논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오늘의 철학 논의에 이어지는 말이다. 플라톤의 초기 저술에서 이 개념은 소크라테스의 철학 활동을 기술하는 말로 사용되며 플라톤의 초기 변증술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정의, 용기, 우애, 경건 등의 윤리적 개념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들이 대답을 시도하는데, 이렇게 제시된 대답을 검토하는 과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보다 흔히 부정적으로 끝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정적인 검토의 과정을 흔히 논박, 엘렝코스라고 부른다. 소크라테스에게서 이 과정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참된 앎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elenchein 혹은 이와 같은 뿌리의 복합어들은 특정 명제를 그 목적으로 지니기도 하나 또 많은 경우에 대화 상대자 자신을 목적으로 가지기도 한다. 어떤 명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명제 혹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테스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엘렝코스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이런 테스트 과정을 소크라테스가 논박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테스트라는 의미의 엘렝코스의 용법은 이미 호메로스로부터 시작되는 이 단어의 용례에서 발견,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파르메니데스의 fr.7에서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엘렝코스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자신을 찾아 온 젊은이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하는 여신은 동시에 자신의 계시의 말을 elenchos라 칭하고 이를 로고스로써 kriein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elenchos는 테스트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계시되는 언어가 테스트되어야 한다고 보고하는 fr.7의 구절은 바로 신화적 세계질서와 그 언술 체제가 공공화된 말을 통해 역시 공적인 검토와 방어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로고스의 질서, 새로운 언어 질서로서의 학문 언어에로 이행하는 과정을 더할 수 없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 파르메니데스
- 토픽 ID : anc_parmenides
- 상위 토픽명 : 서양고대철학자
- 상위 토픽 ID : anc_philosopher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 parmenides

영어 이름 : parmenides

생애 요약 :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 1부 1.1

생애 해설 : 1부 1.2

생애 연보 : 1부 1.3

인물 사진 : http://home.wlu.edu/~mahonj/Ancient_Philosophers/Parmenides.htm

원어 웹사이트 : <http://philoctetes.free.fr//parmenides.htm>

영어 웹사이트 : <http://home.ican.net/~arandall/Parmenides>

한국어 웹사이트 :

연관 관계

저작 : 비존재에 관하여, 파이돈,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트

관계된 철학자 : 고르기아스(anc_gorgias), 플라톤(anc_plato)

기여한 철학 분야 : 논리학(anc_logic),
형이상학(anc_metaphysics)

기여한 철학 학파 :

기여한 철학 이론 : 다원론(anc_pluralism),
원자론(anc_atomism), 이데아론(anc_idea)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 토픽ID : anc_parmenides_fragments
- 상위 토픽명 : 서양고대철학문헌
- 상위 토픽ID : anc_phil_text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

영어 제목 : parmenides fragments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초판 출판년도 :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해설 : 1부 2.2

상세 목차 : 1부 2.3

책표지 그림 :

원어 디지털 텍스트 :

<http://philoctetes.free.fr//parmenidesunicode.htm>

영어 디지털 텍스트 :

<http://philoctetes.free.fr//parmenidespoem.htm>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 [anc_parmenides_fragments_km.xtm](#)

연관 관계

저자 : 파르메니데스([anc_parmenides](#))

관계된 철학자 : 고르기아스([anc_gorgias](#)), 플라톤([anc_plato](#))

기여한 철학 분야 : 논리학([anc_logic](#)),
형이상학([anc_metaphysics](#))

기여한 철학 학파 :

기여한 철학 이론 : 다원론([anc_pluralism](#)),
원자론([anc_atomism](#)), 이데아론([anc_idea](#))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길

- 토픽명 : 길
- 토픽 ID : t1
- 상위 토픽명 : 길
- 상위 토픽 ID : t_anc_way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hodos

영어 용어 : way

한자 표기 : 道

용어 설명 :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파르메니데스(anc_parmenides)

사용한 철학 문헌 :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anc_parmenides_fragments)

사용한 내용 토픽 : 길(c1.1)

3.2 존재

- 토픽명 : 존재
- 토픽 ID : t2
- 상위 토픽명 : 존재
- 상위 토픽 ID : t_anc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to on

영어 용어 : being

한자 표기 : 存在

용어 설명 : 1부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파르메니데스(anc_parmenides)

사용한 철학 문헌 :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anc_parmenides_fragments)

사용한 내용 토픽 : 존재(c1.2)

3.3 엘랑코스

- 토픽명 : 엘랑코스
- 토픽 ID : t3
- 상위 토픽명 : 논박
- 상위 토픽 ID : t_anc_refutatio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elenchos

영어 용어 : elenchos

한자 표기 :

용어 설명 : 1부 2.4.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파르메니데스(anc_parmenides)

사용한 철학 문헌 :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anc_parmenides_fragments)

사용한 내용 토픽 : 엘렝코스(c1.3)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 길

1.1 도입 (e1.1.1-2)

1.2 길의 분석 (e1.2.1)

1.2.1 이야기 풍성한 여신의 길 (q1.2.1.1 / e1.2.1.2-3)

1.2.2 낮과 밤이 갈리는 길, 정의의 여신이 지키는 길
(q1.2.2.1 / e1.2.2.2-3)

1.2.3 ‘사람들의 발자취에서 멀리 떨어진 길, 그러나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 (q1.2.3.1 / e1.2.3.2-5)

1.2.4 탐구의 유일한 길들 (q1.2.4.1 / e1.2.4.2)

1.2.4.1 탐구의 길 (e1.2.4.1.1-3)

1.2.4.2 ‘있다’의 길과 ‘있지 않다’의 길 (e1.2.4.2.1-2)

1.2.4.2.1 ‘있다’와 ‘있지 않다’의 두 길만 있는 이유 (e1.2.4.2.1.1-2)

1.2.5 가야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 (q1.2.5.1 / e1.2.5.2-9)

1.2.6 비존재의 길, 가사자들의 길

1.2.6.1 ‘있다’ ‘있지 않다’의 주어를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
(e1.2.6.1.1)

1.2.6.2 ‘있지 않다’의 길이 탈락하는 이유 (e1.2.6.2.1-3)

1.2.6.3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유를 차단해야 할 길의 성격
(e1.2.6.3.1 / q1.2.5.3.2 / e1.2.6.3.3-4)

1.2.6.4 ‘있다’와 ‘있지 않다’를 뒤섞는 가사자들의 길

- (e1.2.6.4.1 / q1.2.6.4.2 / e1.2.6.4.3-4
/ q1.2.6.4.5 / e1.2.6.4.6-7)
- 1.2.6.5 선언논변으로서 단편 2-7의 검토 (e1.2.6.5.1-2
/ q1.2.6.5.3 / e1.2.6.5.4-5)
- 1.2.6.6 선언논변과 존재의 길의 연관 (e1.2.6.6.1-2)
- 1.2.7 파르메니데스에서 길의 성격
- 1.2.7.1 ‘있다’는 길의 적극적인 성격 (e1.2.7.1.1-3)

2. 존재(to on)

- 2.1 존재와 진리, 존재와 앎 (q2.1.1 / e2.1.2-4)
- 2.2 to on의 의미, 여러 입장들 개관 (e2.2.1-2)
- 2.3 존재의 표지들 (q2.3.1 / e2.3.2-5)
 - 2.3.1 영원한 현재로서의 존재; 존재의 초시간성
(q2.3.1.1 / e2.3.1.2-3)
 - 2.3.2 생성 소멸하지 않음 (q2.3.2.1 / e2.3.2.2-9)
 - 2.3.3 존재의 불가분성 (q2.3.3.1 / e2.3.3.2-3)
 - 2.3.4 존재의 불변성, 부동성, 완전성 (q2.3.4.1 / e2.3.4.2-4)
 - 2.3.5 구형의 완전한 존재 (q2.3.5.1 / e2.3.5.2)

3. 엘렐코스(elenchos)

- 3.1 테스트로서의 엘렐코스 (q3.1.1)
 - 3.1.1 엘렐코스 개념의 역사 (e3.1.1.1-4)
 - 3.1.2 여신의 명령의 로고스적 성격 (e3.1.2.1)
 - 3.1.3 여신의 명령의 신화적 성격 (e3.1.3.1-2)
 - 3.1.4 많은 싸움을 담고 있는 말과 새로운 실정적 힘 (e3.1.4.1-7)

제 3 부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내용 분석 연구

1. 길

1.1 도입

(e1.1.1) 선진시대 노자의 『도덕경』이나 유가경전 『대학』에서 길(道)을 이야기하듯이 비슷한 시기 서양의 파르메니데스도 길을 이야기한다. 큰 배움의 길을 말하는 『대학』이나 삶의 玄妙之道를 말하는 노자의 『도덕경』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파르메니데스의 탐구의 길이나 모두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반성적이고 전체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의 문헌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헌들에서 추구되는 길의 목표나 그에 도달하기 위한 방도 등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냐에 따라 상이한 철학이 세워졌으며, 이 차이는 이 문헌들 이후에 올 문화의 성격을 결정하고 방향지우는 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e1.1.2) 파르메니데스의 길은 그것이 특히 얇고 깊이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얇이 우리의 인지적 능력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양 고대의 문헌들이 추구하고 이야기하던 길과 상당히 선명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가 이야기하는 길이란 어떤 성격의 것이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본문을 통해 보일 것이다. 출발점에서 서양 문화 전통의 진전을 규정하고 있는 파르메니데스의 길이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에서 이야기되었던 길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그 성격과 특징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2 길의 분석

(e1.2.1) 파르메니데스 『단편들』에서 길은 두 상이한 수준에서 이야기된다. 하나는 그의 서시에 제시되는 길로 젊은이가 태양신의 딸들의 인도에 따라 여신을 만나러 가는 여행 기록에 나오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젊은이가 여신을 만나 듣게 되는 여신의 가르침 가운데 제시되는 길로 흔히 진리의 길, 존재의 길로 이야기되는 길이다.

1.2.1 이야기 풍성한 여신의 길(hodos poluphemos daimonos)

(q1.2.1.1) 충동(thymos)이 미치는 데까지 나를 태워 나르는 암말들이 (나를) 호위해 가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이끌어 이야기 풍성한(polyphēmos), 여신의(daimonos) 길로 가게 한 후에, 아는 사람(知者)을 모든 도시들에 두루 데려다주는 그 길로, 거기서 나는 태워 날라지고 있었다. 즉 거기서 아주 명민한 암말들이 마차를 끌면서 나를 태워 나르고 있었고, 처녀들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fr.1.1-5)

(e1.2.1.2) 파르메니데스 『단편들』의 첫 부분은 흔히 서시(prooimium)라 불리는데 이 부분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일인칭으로 자신이 여신을 만나 제시를 받게 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인용된 부분은 이런 여정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단편 1의 시작부이다. 1인칭으로 ‘나’라고 기술되는 화자를 말들이 ‘여신의 길’로 태우고 가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신의 길로 명명된 이 길은 여신에게로 가는 길인데 이야기가 풍성한 길(polyphemon, fr.1.2)이다. 말들은 아는 자들(eidota phota, fr.1.3)을 이 여신의 길로 인도한다. 이 명민한(polyphrastoi, fr.1.4) 말들이 이끄는 마차를 모는 것은 태양의 신의 딸들(heliades kourai, fr.1.9)이다. 마부의 역할은 신의 딸들, 그것도 태양신의 딸들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e1.2.1.3)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길은 따라서 아는 자들이 가는 길이며, 아는 자들을 운반하는 말들도 이야기 풍성한 명민한 말들이고, 이 말

들을 모는 마부도 태양신의 딸들로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이다. 여행은 전체적으로 아는 자가 역시 길을 잘 아는 말에 의해 빛의 존재인 태양신의 딸들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되는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1.2.2 낮과 밤이 갈리는 길, 정의의 여신이 지키는 길

(q1.2.2.1) 닉스(밤)의 집을 떠나 빛을 향해 온 헬리오스(태양)의 딸들(Hēliades)인 처녀들이 머리에서부터 너울을 손으로 밀어젖히고는 (나를) 서둘러 호위해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닉스(밤)와 에마르(낮)의 길들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아래 위 양쪽에서 상인방과 돌로 된 문턱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에테르에 있는 그 문은 커다란 문짝들로 꼭 차 있는데,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polypoinos) 디케(정의)가 그 문의, 응보의(amoibos)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처녀들이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달래면서 영리하게 설득했다, 어서 자기들을 위해 내리잠금목으로 꼭 죄어진(balanōtos) 빗장을 문으로부터 밀어내 달라고. 그러자 이 문이 마개뭇과 핀으로 짜 맞춰진, 청동으로 된 두 회전기둥을 (축받이) 구멍 속에서 번갈아 돌린 후에 활짝 나래 퍼듯 열리면서 문짝들의 짝 벌어진 틈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그 문을 통해 곧장 처녀들이 마차와 암말들을 마차길로 이끌었다.(fr.1.9-21)

(e1.2.2.2) 이 부분은 시인 저자가 태양신의 딸들이 모는 말을 타고 가는 여정이 밤의 세계로부터 낮의 세계로의 여행임을 알려준다. 밤의 세계에서 낮의 세계로 나오는 데에는 낮과 밤이 갈리는 길에서 만나는 상인방과 돌로 된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이 문을 디케의 여신이 지키고 있다. 디케의 여신을 태양신의 딸들이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여 문을 열도록 한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여행의 종착지인 여신의 거소가 되며 여기서 젊은이는 여신을 만난다.

(e1.2.2.3) 밤의 세계에서 낮으로의 여행과 디케 여신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등장

하는 디케 여신은 단편 8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에 근거하여 서시 부분과 이어지는 여신의 진리의 말을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해석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1.2.3 사람들의 발자취에서 멀리 떨어진 길, 그러나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

(q1.2.3.1) 그리고 여신(thea)이 나를 반갑게 맞아들였는데, (내)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맞잡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ēpos)를 하면서 내게 말을 걸었다. 불사(不死)의 마부들과 더불어, 그대를 태워 나르는 암말들과 함께 우리 집에 온 젊은이(kouros)여! 잘 왔다. 그대를 이 길로 오도록 보내준 것은 나쁜 모이라(운명)가 아니라(실로 이 길은 인간들이 밟고 다니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테미스(옳음)와 디케(정의)이니 말이다. 자, 그대는 모든 것들을 배워야(pythesthai) 한다, 설득력 있는(eupeitheos)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심장과, 가사자(可死者)들의 의견들(doxai)을. 그 속에는 참된 확신(pistis)이 없다. 그렇지만 그대는 이것들도 배우게(mathēseai) 될 것이다. [...] 라고 여겨지는 것들(ta dokounta)이 어떻게, 내내 전부 있는 것들로서(per onta) 받아들여질 만하게(dokimōs) 있어야 했던가를.(fr.1.22-32)

(e1.2.3.2) 인용문은 자신의 거처에 도착한 젊은이를 여신이 맞으며 하는 말이다. 여신은 우선 젊은이의 도착을 환영한다. 여신은 그를 태우고 온 말의 마부는 불멸의 존재임을 언명하고 아울러 그가 온 길이 지나는 성격에 관한 몇 가지 언명을 덧붙인다. 젊은이가 온 길은 운이 나빠 오게 된 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길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길이 마땅히 가야할 올바른 길임을 천명한다.

(e1.2.3.3) 이 길이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길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파르메니데스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고자 하는 길이 사람들의 통상적 생각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라는 점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 길이 사람들이 익숙한 길과는

거리가 먼 길이지만 동시에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는 점이 올바름과 정의(themis te dike)라는 개념을 통해 명시되고 있다.

(e1.2.3.4)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는 표현은 여신을 찾아 온 젊은이가 지나온 길이 단지 이미 지나온 과거의 길이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 준다. 즉 이 길이 현재와 미래를 불문하고 항상 가야만 할 길이며 단순히 지나 온 길이라는 의미를 넘어 마땅히 가야 할,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여신은 젊은이가 진리와 의견 모두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의 언명은 앞서 기술된 젊은이의 여정을 뒤에 이야기될 여신의 말에 나오는 길과 연결시켜 주고 있다. 마땅히 가야할 길은 따라서 여신이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그리고 젊은이가 배워야 할 길의 마땅함, 올바름과 연결되고 있다.

(e1.2.3.5) 이런 해석으로부터 제기되는 물음은 서사에서 이야기되는 길과 진리편에서 이야기되는 길의 연관 관계이다. 그러나 계시를 받기 위해 여신을 만나러 가는 길과 계시되는 내용에 나오는 길이 바로 등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사에 나오는 길이 후에 나오는 길과 어떤 점에서 연관될 부분이 있는지가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1.2.4 탐구의 유일한 길들(hodoi mounai dizesios)

(q1.2.4.1) 자, 이제 내가 말할 터이니, 그대는 이야기(mythos)를 듣고 명심하라, 탐구의 어떤 길들만이 사유를 위해(noēsai) 있는지. 그 중 하나는 있다(estin) 라는,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길로서, 페이트(설득)의 길이며(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있지 않다 라는, 그리고 있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는 길로서, 그 길은 전혀 배움이 없는 길이라고 나는 그대에게 지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있지 않은 것을 그대는 알게 될 수도 없을 것이고(왜냐하면 실행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지적할 수도 없을 것이기에.(fr.2.1-8)

(e1.2.4.2)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신은 자신의 길들을 탐구의 길, *dizesis*의 길이라 표현하고 있다. 두 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eisi noesai* 즉 사유될 수 있는, 사유에 접근 가능한(*available*) 길들이다. 사유될 수 있음, 사유에 접근 가능함 여부가 길의 존재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둘 이외에는 다른 사유에 접근 가능한 길은 없다. 다시 말해 이 둘이 제시되는 근거는 그것들이 우리의 사유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1.2.4.1 탐구의 길

(e1.2.4.1.1) 여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구분 가능한 두 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 길을 탐구의 길로 명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신이 이야기하는 길이 길을 통해 이미 찾아진 대상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그 목표물을 찾아가는 길 자체에 맞춰져 있다는 것, 즉 찾는 길 자체가 이야기의 초점이지 그 길을 따라가서 찾게 되는 찾음의 대상으로서 목표물이 논의의 초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목표물이 아니라 그 목표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찾는, 탐구하는 길이 여신의 이야기 주제이다.

(e1.2.4.1.2) ‘탐구’를 의미하는 ‘*dizesis*’는 ‘찾다’를 의미하는 사냥 용어인 동사 ‘*dizemai*’에서 온 것이다. 파르메니데스가 무엇을 찾는다고 생각하며 이 말을 했을지 그리고 탐구의 대상을 그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 제시되는 파르메니데스의 논의 방식은 탐구의 대상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 길들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1.2.4.1.3) 사유에 접근 가능한 길로 여신에 의해 언급된 것은 ‘있다’의 길과 ‘있지 않다’의 두 길이다. 그리스어로 ‘*esti*’, ‘*ouk esti*’ 즉 ‘있다’와 ‘있지 않다’로 표현된 두 길은 명사가 아닌 정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한글이나 현대 인도유럽어로는 불완전한 문장이나 그

리스어로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리스어의 경우 주어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동사의 인칭과 수의 변화 형태에 따라 주어도 확정되기 때문이다. ‘있다’와 ‘있지 않다’라는 언명의 주어는 무엇인지는 문장 내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esti’와 ‘ouk esti’의 주어는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 있어 왔다. 대표적인 입장으로 ① to on 혹은 einai, ② 탐구의 대상, ③ fr.6의 첫 구절에 나오는 ‘말해질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 ④ 비인칭의 it를 주어로 보는 입장 등이 있다.

1.2.4.2 ‘있다’의 길과 ‘있지 않다’의 길

(e1.2.4.2.1) 사유 가능한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은 ‘있다(esti)’의 길이며(that a thing is, and it is not for not being), 다른 하나는 ‘있지 않다’ (ouk esti)의 길이다(that a thing is not, and that it must needs not be). ‘있다’와 ‘있지 않다’의 **길을** 언명한 뒤 ‘있다’의 길은 ‘있지 않음’이 가능하지 않은 길로 다시 언명되고, ‘있지 않다’의 길은 반드시 있지 않아야 할 길로 다시 언명되고 있다.

(e1.2.4.2.2) ‘있다’의 길은 설득의 길(keleuthos peithous, fr.2.4)이라고 언명되고 있는데 설득의 길인 이유는 진리(aleitheia)에 따르기 때문이다. 진리에 따르면 설득된다는 생각이 표명되고 있다. ‘있지 않음(to me on)’의 길은 알려질 수(배울 수) 없는 길인데 왜냐하면 있지 않은 것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질 수 있으려면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이다.

1.2.4.2.1 ‘있다’와 ‘있지 않다’의 두 길만 있는 이유

(e1.2.4.2.1.1)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은 설득과 진리에 **관련되며**, 다른 하나의 길은 앎과 배움이 불가능한 길, 앎과 지적이 불가능한 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길들의 구분은 앎과 진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의해 이

투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길은 진리, 앎으로 가는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을 구분하고 있으며, 앎이 불가능한 길이란 그 길에 관해 알려지는 것이 전연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e1.2.4.2.1.2) 그러나 이 길이 알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곧 또 하나의 길이 진리의 길, 앎의 길임을 바로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있다’의 길이 진리의 길임을 어떻게 보장되는가, 그리고 도대체 진리의 길에서 진리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나아가 ‘있다’와 ‘있지 않다’의 모순율적 구분은 언어적 구분인가, 논리적 구분인가 혹은 사태에 따른 구분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논의 방식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두 대립항을 제시하고 하나가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길을 제시하고 하나가 탈락되고 나머지 하나가 남는 방식으로 길 찾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길 찾기의 방식은 **성격상** 일단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5 가야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

(q1.2.5.1) 말해지고 사유되기 위한 것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나는 그대에게 명한다. 왜냐하면 그대를 탐구의 이 길로부터 우선 <내가 제지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가사자들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머리가 돌인 채로 헤매는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서 무기력함이 헤매는 지성[누스]를 지배하고 있기에) 그 길로부터 (그대를 제지하기예). 그들은 귀먹고 동시에 눈먼 채로, 어안이 병병한 채로, 판가를 못하는 무리로서, 이끌려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있음과 있지 않음이 같은 것으로, 또 같지 않은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의 길이 되돌아가는 길이다.(fr.6)

(e1.2.5.2) 두 개의 가서는 안 될 길이 이야기되고 있다. 하나는 ‘그대를 탐구의 이 길로부터 우선 <내가 제지하는데>’(fr.6.3)라고 되어 있는 구절

의 ‘이 길’과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가사자들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머리가 돌인 채로 해매는 그 길’(fr.6.4-6)이다.

(e1.2.5.3) 첫 번째 길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말해지고 사유되기 위한 것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fr.6.1-2, chre to legein te noein t'eon emmenai, esti gar einai, meden de ouk estin.) 여기서 가지 않아야 할 길에 해당하는 구절은 ‘meden de ouk estin’이 될 것이다. 이 길이 가지 않아야 할 길인 이유는 앞의 문장과 연관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fr.6.1-2의 구절은 여러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물론 상이한 번역은 상이한 해석을 전제하며, 이 해석은 파르메니데스 『단편들』 전체의 이해 방식과 연관된다.

(e1.2.5.4) Owen과 Gallop처럼 “It must be that what is there for speaking and thinking of is; for [it] is there to be, whereas nothing is not”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 번역에서는 meden과 to eon이 대비되고 있다. to eon은 말해지고 사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있는데 반해 meden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meden이 있지 않은 것은 말해지고 사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구절은 fr.2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Owen이 해석하듯 말해지고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해석으로의 연결이 가능해진다.

(e1.2.5.5) 이런 해석의 경우 왜 이 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Owen-Gallop의 입장은 meden이 말할 수 없고 사유될 수 없다는 것인데, 말할 수 없고 사유될 수 없는 것의 길에 대한 금지와 불가능성 언급은 fr.8.16 이하에서도 발견된다.

(e1.2.5.6) 다음으로 갈 수 없는 길로 이야기된 가사자들의 길이 가서는 안 될 길인 이유를 살펴보자. 이 길은 가사자들의 길이다. 다음은 가사자들의 특징들로 언급된 것들이다. anoos, akrita, dikranoi, eidotes ouden plazontai, amechanie en auton stethesin, ithynei plankton noon. 이처럼

귀먹고 동시에 눈먼 채로, 어안이 병병한 채로, 판가를 못하는(akrita) 무리들(fr.6.7), 가슴 속 무기력함이 해매는 누스를 지배하는 무리들(6.6)의 길이 두 번째 길이다.

(e1.2.5.7) 이들의 길을 특징짓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그들이 einai와 ouk einai를 같다고 또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pelein과 ouk einai가 같은 것으로 또 같지 않은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nenomisthai). 존재와 비존재를 판가를 못하는(akrita) 것이 이들을 특징짓는다. 이 둘을 판가를 못하므로 양자가 같은 것이었다가 같지 않은 것이었다가 한다.

(e1.2.5.8)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의 길(keleuthos)이 되돌아오는 길(palintropos)이다.

(e1.2.5.9) 가서는 안 될 두 길 가운데 먼저 이야기된 길은 앞서 언급된 비존재의 길, 두 번째 이야기된 길은 가사자들이 가지는 의견doxa의 세계. 두 번째 길은 fr.2에서 언급된 사유될 수 있는 두 길에 속하지 않는, 따라서 길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두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연 다르다. 하나는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지시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갈 수 없는 길인데 반해, 다른 하나는 einai와 ouk einai가 같다고 또 같지 않다고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의 길이다. 이 후자의 길에 관해서 fr.7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

1.2.6 비존재의 길, 가사자들의 길

1.2.6.1 '있다', '있지 않다'의 주어를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

(e1.2.6.1.1) '있다'의 길이 참이라는 주장은 '있다'의 주어를 '있는 것'으로 볼 때 쉽게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있다'의 길은 단지 언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임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지난 세기 초 Diels나 Cornford(Cornford, 28쪽 이하 참조.)에 의해 주장되면서 이

입장은 오랫동안 지배적인 해석의 위치를 지녀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윤구병, 30쪽 이하, 송영진, 22쪽 이하 참조.) 물론 서양에서도 최근까지 Cordero와 Finkelberg가 이런 주장을 펴긴 하지만, 오늘날 이 입장은 구미 학계에서는 더 이상 지배적인 견해가 아니다. 예컨대 Owen, Gallop, Schofield, Coxon 등 많은 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더 이상 취하지 않는다(Owen, 10쪽 이하, Gallop, 서론, KRS, 244쪽 이하, Coxon, 19쪽 이하 참조, 김내균, 170쪽 이하 참조.). 이 주장에 따라 ‘있는 것’이라는 생략된 주어를 보충하면, ‘있다’의 길은 ‘있는 것이 있다’라는 동어 반복문이 된다. 이는 자명한 분석문으로 진술의 참임도 당연히 따라 나온다.(Cornford 30-31쪽 참조.) 이런 경우라면 이 명제가 참이요 따라서 선택되어야 할 것임은 선언 논증의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자명하게 될 것이다. 이 입장은 ‘있지 않다’라는 길에도 ‘있다’의 길과 같은 주어를 보충하면서 이 길에 참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한다. ‘있다’의 경우처럼 주어로 ‘있는 것’을 보충하게 되면 얻어지는 진술은 ‘있는 것은 있지 않다’가 된다. 이는 모순문이 되어 당연히 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는 안 될 이유는 그것이 모순의 길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있다’와 ‘있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는 자명하게 된다. 따라야 할 길은 당연히 첫 번째 길 즉 ‘있다’의 길이 되며, 이 경우 선택되어야 할 길이 분명해지는 것은 선언 논변을 통해서 이기보다는 각 선언지들의 진리 여부를 통해서이다.

1.2.6.2 ‘있지 않다’는 길의 사유 불가능성과 언표 불가능성

(e1.2.6.2.1) 참의 길의 참임과 그렇지 않은 길의 허위임이 자명하게 드러난다는 이런 매력 때문에 위의 해석이 오랜 동안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앞에 인용된 구절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되면 설득력을 잃는다. 문제는 ‘있지 않다’라는 두 번째 길에 탈락되는 이유가 모순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위에 인용된 단편 2에서 ‘있지 않다’의 길이

탈락되는 이유는 ‘있지 않은 것’(to me on, fr.2.7) 즉 비존재를 알게 될 수도 없을 것이고(oute an gnoies, fr.2.7), 지적할 수도 없으며(oute phrasais, fr.2.8) 그래서 전혀 배움이 없는 길(panapeuthea fr.2.6)이라는 점에 있다. 있지 않은 것은 지적해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있지 않은 것을 지시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모순 여부를 가릴 진술 자체가 ‘있지 않다’의 길에서는 의미 있게 성립하지 않으며 그래서 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으며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2.7에서 제시되는 ‘있지 않은 것’(to me eon)이라는 표현은 2.5에서 제시된 두 번째 길의 ‘있지 않다’를 명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든 ‘있지 않다’의 주어 위치에 오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술어와 연결되는데, ‘있지 않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진정으로 있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지적이나 언명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논의의 요지가 된다.

(e1.2.6.2.2) 이 문제에 관련된 논의가 결정적이기 위해서는 ‘있다’와 ‘있지 않다’의 주어가 무엇인가 대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단 그 주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것은 아니나 위의 논의를 통해 시사되었다. 아울러 있지 않은 것이 알려질 수 없고 언표될 수 없으며 사유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있는 것은 반대로 언표될 수 있고, 사유될 수 있으며, 알려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Owen이나 Gallop은 이런 이유에서 ‘있다’와 ‘있지 않다’의 주어를 ‘알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fr.6.1을 이런 방식으로 읽는다. Palmer는 앞의 대상으로 주어를 삼고 단편 전체를 앞의 가능성으로부터의 논변으로 읽는다. 필자도 이 두 해석의 선상에서 ‘있다’와 ‘있지 않다’의 주어를 보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fr.3, fr.6.1-2 및 fr.8.34-41에 관한 논의와 함께 다루어질 것이다.

(e1.2.6.2.3) 비슷한 논변이 다른 두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fr.8.8에서는 있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고(ou phaton) 사유할 수도 없는 것(oude noeton)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fr.8.17에서는 ‘있지 않다’의 길

이 사유될 수 없고(anoeton) 이름 없는(anonymon) 것으로 언명되고 있다. 즉 ‘있지 않다’의 길이 탈락되는 이유는 이 구절들에서 드러나듯이 그것이 모순율을 어기기 때문이 아니다. ‘있지 않다’의 주어가 되는 것은 바로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도대체 의미 있는 언명이나 사유 또는 명명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있다. Owen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여기서 파르메니데스는 ‘있지 않다’의 길을 부인하고 ‘있다’의 길을 논변을 통해 옹호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지 전제하려는 것이 아니다.(Owen, 10쪽 이하 참조.)

1.2.6.3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유를 차단해야 할 길

(e1.2.6.3.1) 이런 관점에서 단편 7의 1-2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여신은 말은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해석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물음을 제시한다. 여신의 말을 들어보자.

(q1.2.5.3.2) 이것, 즉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결코 강제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그대는 탐구의 이 길로부터 사유를 차단하라.(fr.7.1-2)

(e1.2.6.3.3) 여신은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주장을 문제 삼으며 이 주장이 힘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길로부터 생각을 차단하여 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물음은 여기서 멀리해야 할 길이란 어떤 길인가 이다. 물론 그 길은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길이다. 바로 제기되는 물음은 이 주장을 담고 있는 길이 단편 2에서 제시된 ‘있지 않다’의 길인지 혹은 단편 6에서 제시되었던 가사자들의 길인지 하는 물음이다. 위에서 제시된 입장에서 가능한 손쉬운 해석은 이 길을 ‘있지 않다’의 길로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Nehamas가 이 길을 두 번째 길로 해석한다.(Nehamas, 125쪽 이하 참조.)

(e1.2.6.3.4) 이런 해석을 취하는 이들에게 비존재의 길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가서는 안 될 길인 이유가 모순문이기 때문이며, 단편 7의 이 구절

이 모순문이므로 ‘있지 않다’의 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듯이 ‘있지 않다’의 길이 기각된 이유는 있지 않은 것의 인식불가능성과 언표불가능성에 있다. 비존재(to me on, fr.2.6)의 경우 그것이 비존재인 고로 의미 있는 언명이 성립가능하지 않은데 반해, fr.7.2에서 제시된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언명이 보이는 모순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fr.7.2의 구절을 비존재의 길로 읽기가 어렵다. 나아가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이 구절은 언명의 형식상으로도 ‘있지 않다’의 길로 읽기 어렵다.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이 진술은 ‘있지 않다’의 길이 표현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있지 않다’의 길은 술어 부분에서 ‘있지 않다’라는 형식을 취하나 fr.7.1의 구절은 이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6.4 ‘있다’와 ‘있지 않다’를 뒤섞는 가사자들의 길

(e1.2.6.4.1) 그렇다면 단편 7의 2행이 가리키는 길은 어떤 길인가? 물론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섞는 가사자들의 길이다. 이 점을 단편 6.4-9의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q1.2.6.4.2)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가사자들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머리가 돌인 채로 헤매는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서 무기력함이 헤매는 지성[누스]를 지배하고 있기에) 그 길로부터 (그대를 제지하기에). 그들은 귀먹고 동시에 눈먼 채로, 어안이 병병한 채로, 판단력 못하는 무리로서, 이끌려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있음과 있지 않음이 같은 것으로, 또 같지 않은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의 길이 되돌아가는 길이다.(fr.6.4-9)

(e1.2.6.4.3) 이 글에서 가사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길이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자들이다. 머리가 돌인 채로 헤매는 마음은 어쩔 줄 몰라 가슴 속 무기력함에 의해 인도된다. 귀먹고, 눈멀고, 어안이 병병한 채로 그들은 판가름 못하는 무리(fr.6.7)로 폄하되는데

어떤 점에서 그들이 판가름 못하는 무리들인지가 마지막 두 행에서 이야기된다. 그들은 있음(to pelein, fr.6.8)과 있지 않음(ouk einai, fr.6.8)이 동일하다고 여기고 또 동일하지 않다고 여긴다. 즉 그들은 있음과 있지 않음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양자를 같다고 했다가 또 같지 않다고 했다가 혼동하는 것이다. 그들이 akrita phyla 즉 판가름 못하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있지 않다’의 길이 불가능한 것으로 ‘있다’의 길이 분명히 구분되고, 제거되면 이런 혼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fr.7.1행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있지 않은 것들(me eonta, fr.7.1)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있지 않은 것’의 사유 및 언표불가능성을 분명히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가사자들의 방향과 혼동은 비존재의 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따라서 존재와 비존재를 섞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모순율을 범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따라서 두 번째 ‘있지 않다’의 길에서가 아니라 가사자들의 길에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배중율을이나 모순율의 정식화는 후에 이루어지지만, 이 원칙을 논의에 사용하고 이를 어기는 논의를 배제하는 일은 파르메니데스 작업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1.2.6.4.4) 단편 7.3-6에서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논의 구조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단편은 단편 8과 이어지면서 논의의 연결을 보여주기 때문에 논의 구조의 해명에 도움을 준다. 단편 7.5에서 여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에게 판가름할 것을 요구한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신 자신의 말이다. 단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q1.2.6.4.5) 그리고 습관(ethos)이 (그대를) 많은 경험을 담은(polypeiros) 이 길로 (가도록), 즉 주목하지 못하는 눈과 잡소리 가득한 귀와 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하라. 다만 나로부터 말해진, 많은 싸움을 담은 엘렝코스[테스트](polydēris elenchos)를 로고스[논변](logōi)로 판단 [판가름]하라(krinai).(fr.7.3-6)

(e1.2.6.4.6) 단편 7.5에 제시된 로고스의 판단은 7.3에 이야기된 습

관의 강제와 대비되어 있다.(김남두, 「파르메니데스와 앎의 실정성」, 105쪽 이하 참조.) 습관은 주목하지 못하는 눈과 잡소리 가득한 귀와 혀를 이끌어 경험의 길로 강제한다. 경험의 길은 첫 행에서 이야기되듯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되는 길이다. 이 길에서는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로고스란 여기서 구분 능력, 판단 능력, 따지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능력으로 해야 할 일도 바로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구분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다. 있음과 있지 않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판단력을 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경험의 길은 판단력을 결한 길로 배제된다.

(e1.2.6.4.7) 여기서 판단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떼어내는 작업, 이를 통한 나머지의 선택 작업을 의미한다. 이점은 fr.8.15-18의 구절에서 재확인된다. ‘이것들에 관한 결정[판가름](krisis)은 다음의 것에 달려 있다. 있거나 아니면 있지 않거나이다. 그런데 필연인 바 그대로’(fr.8.15-16)라는 구절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있다’와 ‘있지 않다’가 구분되고 둘 가운데 하나가 배제되었음을 이른다. 하나가 배제됨으로써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하나는 선택된다. 즉 ‘있지 않다’가 배제됨으로써 ‘있다’가 남아 있게 된다. fr.8.15-18에는 판단, 결정을 뜻하는 말이 두 번 나온다. fr.8.15에 이것들에 관한 결정(krisis)이 ‘있거나 혹은 있지 않다’에 있다고 이야기되며 이어 fr.8.18에서는 결정이 내려져 있다(kekritai)고 말하고 있다. 결정으로 번역한 krisis는 떼어냄, 선택함, 결정, 판단, 시험 등의 의미를 지니며 kekritai는 krinō의 수동완료형으로 역시 구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판단의 요구에서 내용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있다’와 ‘있지 않다’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사자들의 길이란 결국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있지 않다’의 길이 판단을 통해 제거되는 경우에는 ‘있지 않다’의 길과 함께 ‘있다’와 ‘있지 않다’가 같다가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가사자들의 길이 함께 제거된다. 혼동의 원인이 될 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없는 것

들이 있다’는 길로 잘못 들어설 위험도 없게 된다. fr.7.5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통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1.2.6.5 선언논변으로서 단편 2-7의 검토.

(e1.2.6.5.1) 단편 2에서 단편 7에 이르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과정이 제거해야 할 길을 제거해 가는 판단의 과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단편 2에서 사유로 판단해야 할 두 길이 제시되고 둘 가운데 하나가 탈락한다. 단편 6에서의 언명 뿐 아니라 단편 7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자들의 길에 관한 언급도 앞의 두 길에 대한 언급과 달리 한 단계 상위 수준에서의 언급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무도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가사자들의 언급을 분석하면 이런 입장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입장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fr.7.1의 가사자들의 길에 관한 언급은 가능한 선택지로서 앞서 언급된 두 길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언급이기보다는 구분하지 못했을 경우의 혼동을 보여주는 반성적 논의 수준에서의 언급으로 볼 수 있다.

(e1.2.6.5.2) 이어서 로고스로써 판단하라는 여신의 말이 따르고 단편 8의 1-2행에서 다음의 말이 이어진다:

(q1.2.6.5.3) [...] 길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다, 있다 라는(fr.8.1-2)

(e1.2.6.5.4) 여기서는 나머지 길들이 제거되고 ‘있다’의 길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명되어 있다. 자신을 찾아 온 파르메니데스에게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바로 ‘있다’와 ‘있지 않다’의 두 길을 구분하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일이며, 이 구분과 판단을 하는 기능이 로고스이다. 세 번째 길이 단편 2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이 길이 앞의 두 길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비로소 생겨나는 길

이기 때문이다. ‘있음’과 ‘있지 않음’을 섞고 구분하지 못하는 가사자들의 길은 사유를 위한 길의 범위에 들지 못하고 제외된다. 단편 7.3에서 말하듯 그것은 습관(ethos)과 경험(polypeiron)의 길이며, 주목하지 못하는 눈과 잡소리 가득한 귀와 혀가 이끄는 길이다. 이 감각들에 이끌리는 습관과 경험의 길이 힘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사유를 이 길에서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길이 있음과 있지 않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 있지 않은 것들을 있다고 말하게 된다.

(e1.2.6.5.5) ‘있다’와 ‘있지 않다’의 두 길 가운데 ‘있지 않다’의 길이 언명 불가능하고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제거된다. ‘있지 않다’의 길을 제대로 구분하여 떼어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길이 가사자들의 길인데, 이는 사유의 기본 규칙을 어기는 길이다. 모순율의 표현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분명히 되지만 이것이 아직 분명히 표현되기 이전의 파르메니데스에서도 모순율을 어기는 진술과 세계 파악은 사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단편 2에서 ‘있다’와 ‘있지 않다’의 두 길만이 사유를 위한 길로 있다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6.6 선언 논변과 존재의 길의 연관

(e1.2.6.6.1) 이제 단편 8에서 진행되는 존재에 관한 논의가 위에 분석된 선언 논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자.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단편 8의 15행 이하 논의에서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15행에서 여신은 이 문제들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있지 않다’에 달려 있으며, 결정은 이미 내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있다 혹은 있지 않다’에 관해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은 ‘있지 않다’의 길이 탈락되고 ‘있다’의 길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15행에서는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이것들’이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밝혀져야겠다. 무엇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혹은 있지 않다’의 결정 여부에 따르는지가 분명해져야 하겠기 때문

이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fr.8.2에서 8.15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자. fr.8.2 이후에서 ‘있다’의 길에 여러 표지들(semata)이 있음이 이야기된다. 이어서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온전한 한 종류의 것이고 흔들림 없는 부동의 완결된 것으로 시간을 넘어 있다는 존재(eon, fr.8.3)의 표지들이 열거된다. 이 존재의 표지들을 이야기한 후 존재의 생성, 소멸 불가능함이 fr.8.21까지 논변되며, 우리가 검토하는 구절도 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다. 여신은 여기서 존재가 생성될 수 없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으나 fr.8.14에서 소멸하지 않음도 추가하고 있다. 이 논변들에 비추어 보면 일단 ‘이것들’이라는 대명사가 존재의 생성 소멸 여부에 관한 논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존재가 생성 소멸하느냐 여부의 결정은 ‘있거나 혹은 있지 않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fr.8.15-16의 내용이 되겠다.

(e1.2.6.6.2) ‘있거나 혹은 있지 않다’의 논의가 결정되면 있는 것들이 생성 소멸하는지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있지 않다’라는 선언지의 탈락이 있는 것의 생성 소멸 여부 논증의 결론을 함께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존재가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는 논변에 비존재의 인식 및 언표 불가능성 테제가 전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단편 2에서 8 초반까지의 선언 논변이 비존재의 길이 탈락되고 존재의 길이 선택되는 논의에서만 역할을 하는 데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존재의 길의 논변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논의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먼저 내릴 수 있는 결론의 하나는 진리의 길의 참임이 진리의 길 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선언 논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편 2.4에서 ‘있다’는 길의 참임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이 길의 참임에 관한 증명은, 적어도 단편 8에서 논의되는 방식인 한에서는, 비존재의 인식 및 언표 불가능성이라는 전제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존재의 길이 참이라는 점은 존재의 길 내에서만 이끌어 내 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비존재의 길이 탈락하고 존재의 길만이 남는 선행하는 선언 논변에 기반하고 있다.

1.2.7 파르메니데스에서 길의 성격

1.2.7.1 ‘있다’는 길의 적극적인 성격

(e1.2.7.1.1) 위에서 인용된 구절의 분석은 단편 8에서 진행되는 존재에 관한 논의가 단편 8 이전의 선언 논변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점은 위에 부분적으로 분석된 생성 소멸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불가분할성(oude diaireton, fr.8.22-24), 부동성(akineton, fr.8.26-31) 등에 관한 여타의 논변들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 존재에 관한 논의들, 보다 정확하게는 존재의 표지들(semata, fr.8.2)에 관한 논의들이 비존재의 제거를 전제로 하면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존재란 바로 이런 비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어떤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파르메니데스의 논의에서 존재의 성격에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다. 즉 비존재의 제거가 단순히 논변 형식에서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통찰이 가능하다.

(e1.2.7.1.2) 단편 2에서 탐구의 길로서 ‘있지 않다’ 그리고 아울러 비존재의 탈락 이유가 그것의 인식과 언표 불가능성에 있다는 것이 앞서 언급된 바 있다. 그리고 단편 8에서는 이 이유 이외에 사유 불가능성과 명명 불가능성이 첨가되었다. 비존재의 탈락 이유가 인식 불가능성, 언표 불가능성, 사유 불가능성이라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밝혀 주는 단서가 된다. 비존재가 사유와 언표 그리고 인식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탐구의 길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탈락되었다면, 그것과 모순 관계에 있는 존재는 당연히 인식 가능하고, 언표 가능하며, 사유 가능한 것이 된다. 인식 가능하고 언명 가능하며 사유 가능하다는 것이 존재의 충분조건이 되는지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필요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될 수 있다. 언표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떤 범위의 것인지를 자세히 논의해야 할 것인데, 이 물음은 단편 8에서 제시되는 존재의 표지들(semata, fr.8.2)에 관한 논의를 통해 좀 더 진전시켜 볼 수 있다.

(e1.2.7.1.3) 단편 8의 49행까지 전개된 존재의 길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서두 부분과 본격적인 논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서두의 1-2행에서 존재의 길의 이야기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야기되고 곧 이어서 6행까지 이 길에 많은 표지들이 있다는 것과 그 표지들이 열거된다. 6행의 후반부터 42행까지의 논변 부분은 다시 존재가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fr.8.6-21), 불가분적이고(fr.8.22-25), 불변, 부동하며 완전하다는 것(fr.8.26-33), 그리고 구형과 같다는(fr.8.42-49) 네 논변으로 구성되며 fr.8.34-41 부분은 일종의 중간 요약과 보론의 성격을 지닌다.(Gallop, 18쪽 이하와 Coxon, 208쪽 이하 참조.)

2. 존재(to on)

2.1 존재와 진리, 존재와 앎

(q2.1.1) 자, 이제 내가 말할 터이니, 그대는 이야기(mythos)를 듣고 명심하라, 탐구의 어떤 길들만이 사유를 위해(noēsai) 있는지. 그 중 하나는 있다(estin) 라는,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길로서, 페이토(설득)의 길이며(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있지 않다 라는, 그리고 있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는 길로서, 그 길은 전혀 배움이 없는 길이라고 나는 그대에게 지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있지 않은 것을 그대는 알게 될 수도 없을 것이고(왜냐하면 실행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지적할 수도 없을 것이기에.(fr.2.1-8)

(e2.1.2) 파르메니데스(Parmenides)는 존재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존재(to on)의 개념을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부각시키고 이 개념을 통해 그의 철학을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이 칭호는 타당하다. 파르메니데스에서 존재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첫 어휘는 명사형 ‘to on’이 아니라 정동사 형태의 ‘있다’(esti)와 ‘있지 않다’(ouk esti)이다. ‘있다’와 ‘있지 않다’는 탐구의 길은 이처럼 두 선언지로 주어진다. 따라서 ‘있다’는 일단 탐구의 길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있다’의 주어가 되는 것은 ‘있지 않음’이 가능하지 않다. 즉 반드시 존재한다. 왜 명시적인 주어 없이 ‘있다’와 ‘있지 않다’만 제시되었을까? 주어에 해당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탐구의 대상이든, 길이든 존재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있으며, 있지 않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여신이 전해주는 ‘있다’의 길이다.

(e2.1.3) 이 ‘있다’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fr.2.4와 fr.2.7-9의 이어지는 언명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 첫 번째 길인 이 ‘있다’의 길은 설득(pei-thō)의 길이다. 설득의 길인 이유는 그것이 진리(aletheia)에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있다’의 길은 진리에 따르는 길이며 그래서 설득되는 길, 설득되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e2.1.4) 진리와 관계되는 ‘있다’의 길은 다시 앎과 연관될 수 있다. 인용된 ‘있다’의 길에 직접 앎의 언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앎에 관한 언급은 ‘있지 않다’의 길에서 있지 않은 것 즉 비존재(to me on)에 관련하여 제시된다. 위에 나온 ‘있지 않다’는 fr.2.6에서 ‘to me on’으로 명사화된다. ‘있지 않다’의 길은 전적으로 알려질 수 없는 것, 그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며, 분명한 이유가 제시된다.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있지 않은 것에 관해 알거나 지시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있지 않은 것이 알 수도 지시할 수도 없고 그에 관해 어떤 종류의 정보도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에 대답되는 있는 것은 앎과 지시가 가능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진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있다’의 길은 그에 관해 앎이 가능한 어떤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길이란 진리의 길, 앎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2 to on의 의미, 여러 입장들 개관

(e2.2.1) 여기서 ‘있다’로 번역되는 *esti*는 우리말로 ‘이다’로도 번역 가능하다. ‘그는 학생이다(He is a student)’의 경우에 영어의 ‘is’가 ‘이다’로 번역되는 경우가 그 한 예이다.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존재적 용법(existential use)이라고 한다면, ‘이다’의 의미로 쓰인 *esti*는 술어적 용법(predicative us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두 분류 이외에 Charles Kahn의 구분에 따른 또 하나의 용법이 구분된다. 그리스어에서 *esti*는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참임을 수증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Is he a student?’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가 ‘Yes, he is.’라고 대답할 경우 대답에 사용된 ‘is’는 그가 학생이냐는 물음에 그가 학생이라는 것을 긍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앞의 영어문장에서 ‘Yes, he is’는 ‘Yes, it is the case that he is a student’라는 문장을 축약한 대답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여기서 사용된 ‘is’는 ‘is the case’의 의미로 앞의 문장에 함축된 사태 혹은 주장이 참임을 수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스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같은 esti의 의미는 진리적 용법(veridical use)으로 분류되어, 앞의 존재적 용법, 술어적 용법과 함께 esti 동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세 경우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e2.2.2) 파르메니데스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to on이나 einai가 이 세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에 관해 학자들 사이의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 논의는 아직 어느 한 방향으로 종결되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 esti를 ‘있다’로 to on을 ‘존재’로 번역하는 것은 일단 잠정적인 것으로, 단지 esti나 to on을 대신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2.3 존재의 표지들

(q2.3.1) [...] 길에 관한 이야기(mythos)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다, 있다라는. 이 길에 아주 많은 표지들(sēmata)이 있다. 있는 것은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온전한 한 종류의 것(oulon mounogenes)이고 흔들림 없으며 완결된 것(ēde teleston)이라는.(fr.8.1-4)

(e2.3.2) 단편 2-7에서 ‘있지 않다’라는 비존재의 길과 ‘있다’와 ‘있지 않다’가 혼동되는 가사자들의 길이 기각된 후 여신은 이제 ‘있다’라는 길의 이야기만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이 ‘있다’의 길에는 많은 표지들이 있다. 표지로 번역된 sema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sign으로 번역되는데 그 표지를 따라가면 도달하려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일종의 도정표(道程標)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목적지는 물론 존재의 세계가 되겠다. 다시 말해 이 표지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존재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데, 이 조건들을 갖추면 존재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만큼 존재의 속성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생성 소멸하지 않고, 분할되지

않으며, 부동이고, 전체이며, 단일하고, 완전하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찾아가면 항상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존재를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성질을 가진 것과 존재를 등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e2.3.3) 이 표지들을 앞의 물음 즉 사유와 인식 가능성의 범위라는 물음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 나눌 수 없는 전체이며, 불변, 부동하며 완전하다는 등의 조건을 갖출 때 인식 가능하고 사유 가능하며 제대로 언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는 인식, 사유, 언표 가능성이란 바로 존재 가능성과 등치될 수 있다.

(e2.3.4)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 불가분의 완전한 전체라는 이 같은 표지들은 어떤 것이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규범적이란 여기서 근대의 흄의 Is-Ought 구분에 보이는 ‘당위’의 좁은 의미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김남두, 「좋은 의의와 앎의 성격」, 193쪽 이하 참조.) 어떤 것이 존재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기 위한 조건이라는 의미에서의 이런 규범적 성격은 존재의 표지들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 표지들이 그 핵심에서 비존재를 피하면서 이야기되며, 비존재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이야기되는 것들만큼, 파르메니데스에서 존재의 규범성이란 비존재의 불가능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란 비존재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곳에서 성립하며 따라서 그 표지들은 이런 비존재를 넘어서게 하는 조건들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비존재의 불가능성 위에 성립된 존재, 비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존재만 있는, 그래서 존재의 타자는 허용되지 않는 존재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라는 점이 이야기될 수 있겠다.

(e2.3.5) 이 구절에 제시된 존재의 표지는 다음의 것들이다: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온전하고 한 종류의 것(oulon mounogenes)이며 흔들림 없고 완결된(ēde teleston) 것임. 단편 8.6에서 8.49에 이르기까지 이 표지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3.1 영원한 현재로서의 존재; 존재의 초시간성

(q2.3.1.1) 그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게 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함께 하나로 연속적인 것으로 있기에. (fr.8.5-6)

(e2.3.1.2)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구절은 먼저 그것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즉 ‘있는 것’에 대해 과거와 미래가 모두 부인되며 인정되는 것은 현재뿐이다. 지금 전부 함께 하나로 연속적인 것으로 있다는 것이 존재에 과거와 미래가 부정되는 이유로 주어져 있다. 이 구절은 흔히 존재가 과거와 미래를 넘어서 있는 초시간적인 것임을 논변하는 최초의 구절로 이야기되어 왔다. 이 구절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우주(의 질서)는 [...]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만들지 않았고 항상 있었고 있으며 있을 영원히 살아있는 불이다.”(DK, 22B30)라는 구절과 대비될 수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살아 있는 불이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 있다고 하면서, 그것의 영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르메니데스의 이 구절은 존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두루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에 과거와 미래를 부인함으로써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현재만을 귀속시키고 있다. 존재의 이런 성격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37d- 38a에서 이데아의 성격으로 이야기된다.

(e2.3.1.3) 존재의 영원함: 그러나 이 구절이 존재의 초시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상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Schofield, Gallop 참조). 존재의 초시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그것이 ‘지금 전부 함께 하나로 연속적인 것으로 있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함께 하나로 연속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의 근거이다. 특히 연속되어 있다는 *syneches*를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이 구절은 존재가 시간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경우 존재가 ‘있지도 않았고, 있을 것도 아니’라는 구절은 생성과 소멸을 부인하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있는 것은 ‘(없다가) 있지도 않았고, (있지 않다가) 있을 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2 생성 소멸하지 않음

(q2.3.2.1) 그것의 어떤 생겨남을 도대체 그대가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자라난 것인가? 나는 그대가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라고 말하는 것도 사유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있지 않다 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필요가 먼저보다는 나중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해서 자라나도록 강제했겠는가? 따라서 전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없거나 해야 한다. 또 확신의 힘은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것이 그것 곁에(para) 생겨나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디케(정의)는 족쇄를 풀어서 생겨나도록 또 소멸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짊 붙 들고 있다. 이것들에 관한 판가름(krisis)은 다음의 것에 달려 있다. 있거나 아니면 있지 않거나이다. 그래서 필연인 바 그대로, 한 길은 사유될 수 없는 이름 없는 길로 내버려두고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므로) 다른 한 길은 있고 진짜이도록 허용한다는 판가름이 내려져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있는 것이 나중에 있을(epeita peloi)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그것이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생겨났다면 그것은 있지 않고, 언젠가 있게 될 것이라면 역시 있지 않기에. 이런 식으로 생성은 꺼져 없어졌고 소멸은 들리지 않는다.(fr.8.6-21)

(e2.3.2.2) 생성 소멸하지 않음: 이 구절에서는 존재가 생성되거나 소멸된다는 것이 부인되고 있다. 논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만약 존재가 생성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생성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fr.8.7-9). 존재하는 것으로부터의 생성도 불가능하다. 고로 존재는 생성하지 않는다.

(e2.3.2.3) 이 부분은 단편 8의 3행에서 존재가 생성되지 않았고(ageneration), 소멸되지 않는(anolethron)다는 표지에 관한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물음이 제기되고 이어 대답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논변이 진행된다. 물음의 핵심은 존재가 생겨났다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하는 것이다. 대답은 일단 비존재와 관련해 주어지며, 두 가지로 주어진다.

(e2.3.2.4) 첫 번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신은 비존재로부터 라고 대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비존재는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존재가 생성되었다면 존재로부터 생성되었거나 비존재로부터 생성되었다. ② 그런데 비존재는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③ 그러므로 비존재로부터 라고 대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그러므로 존재가 비존재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e2.3.2.5) 이것은 앞서 단편 2.7-8에서 비존재가 알 수도 지시할 수도 없으므로 전연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단편 2에서 인식될 수 없다고 표현되었던 것이 여기서는 사유될 수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첫 번째 대답은 일단 비존재가 말하고 생각될 수도 없으므로 이것으로부터의 존재의 생성 역시 생각되거나 말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대답에 이끌어 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일단 여기서 비존재의 언표 불가능성과 인식 불가능성이라는 명제가 언표 불가능성과 사유 불가능성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논변의 전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2.3.2.6) 비존재로부터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 언표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면, 왜 그것이 언표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다시 물을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시 ‘비존재이므로’라는 것이 될 것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여기서 지시 대상이 없으므로 그것에 관해 언표나 사유가 불가능함의 이유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해지고 사유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생성될 수 없는 이유라기보다도, 그것이 말해질 수 없고 사유될 수 없음과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생성될 수 없음이 모두 동일하게 비존재이기 때문에 즉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존재로부터는 사유, 언표, 생성의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2.3.2.7) to on 이나 esti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여기서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 구절과 이에 연관되는 단편 8.7-11, 8.17-18의 구절들은 존재적 번역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리적 용법을 창도했던 Kahn이 그의 근래 논문에서 이야기하듯 파르메니데스의 문헌에서 to on 이나 esti를 지나치게 일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오늘날의 문제의식을 기원전 5세기 전반의 사상가에게 강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존재’가 어떤 종류의 규정성을 전제하며 또한 ‘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to on 이나 esti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경우에 따라 하나의 의미가 두드러지면서 두 의미가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혼동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Kahn, 238쪽 이하 참조.)

(e2.3.2.8) 두 번째 논의는 존재가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여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생성할 특별한 필요와 동력이 있겠느냐는 물음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 논변 역시 비존재의 사유 및 언표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의 길 이전의 선언 논변과 연결되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더 빠르거나 더 늦게가 아니라 특정 시간에 어떤 것이 생성할 충분한 이유가 없으므로 존재가 생성된 것일 수 없다는 이 논변은 충족이유율을 전제하는 논의로 보인다. 배중율이나 모순율이 그랬던 것처럼, 후에 라이프니츠에서 명시적으로 정식화되는 충족이유율이 아직 정식화되지는 않았으나 논변의 전제로 사용되고 있다. 칸트의 제1이율배반의 논변과 동일한 이 논변에서 사용된 전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이 특정 시간에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특정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무로

부터 존재가 생성되었다면 그것이 특정 시간에 생성될 어떤 이유도 주어질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그 시간이나 어떤 다른 시간에도 생겨날 이유가 없다.

(e2.3.2.9) 인용된 구절은 존재가 생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논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3 존재의 불가분성

(q2.3.3.1) [그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균일하기에. 또 여기에 조금도 더 많이 있지도 않고(그런 상태는 그것이 함께 이어져 있지 못하도록 막게 될 것이다), 조금도 더 적게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전체가 있는 것으로 꼭 차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가 연속적이다. 왜냐하면 있는 것이 있는 것에 다가가기 때문이다.(fr.8.22-25)

(e2.3.3.2) 이 부분은 존재가 연속된 전체임을 논증한다. 실재는 불가분의 충만체이다. 충만한 것으로서 이 실재가 불가분인 이유는 있는 것과 있는 것의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있는 것에 다가가 있으며 닿아 있다. 어느 한 부분이 덜하고 다른 부분이 더하지 않으므로 어느 부분이 분할될 이유가 없다. 모든 점들에서 실재가 동일하게(homoion) 있으며, 모든 부분에서 존재로 가득 차 있으므로 모든 점에서 동질적이고 따라서 특별히 어느 점에서 나눌 수 없다.

(e2.3.3.3) 이 부분에서 존재의 연속성이 시간의 연속성과 공간적 연속성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양자 모두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이 부분이 시간적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에서 존재의 초시간성 혹은 영속성에 관한 fr.8.5-6의 논의는 존재의 초시간성에 관한 논의라기보다 영속성에 관한 논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적 영속성에 관한 논의라면 이후 이어지는 논의들 특히 fr.8.42-49의 구형에 관한 논의

와 잘 연결될 수 있다. 모든 부분에서의 동질성에 관한 주장이 논의의 초점을 이루는 만큼 공간적 동질성에 관한 논의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3.4 존재의 불변성, 부동성, 완전성

(q2.3.4.1)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속박들의 한계들 안에서 부동(不動)이며 시작이 없으며 그침이 없는 것으로 있다. 왜냐하면 생성과 소멸이 아주 멀리 쫓겨나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참된 확신이 그것들을 밀쳐냈기 때문이다. 같은 것 안에 같은 것으로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놓여 있고 또 그렇게 확고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강한 아낭케(필연)가 그것을 빙 둘러 에워싸고 있는 한계의 속박들 안에 [그것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는 것이 미완결이라는 것은 옳지(themis) 않다. 왜냐하면 결핍된 것이 아니며, 만일 결핍된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이 결핍된 것일 테니까.(fr.8.26-33)

(e2.3.4.2) 존재가 부동이라는 이 표지에는 두 논변이 주어진다. 하나는 앞서 제시된 존재의 생성, 소멸 불가능성 논변에 연결되어 있다. 생성과 소멸이 불가능하므로 변화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변화는 이미 있던 것의 소멸과 있지 않았던 것의 생성을 함축한다. 따라서 생성과 소멸이 사라져 불가능하다면 변화도 가능하지 않으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 논변에서 질적 변화의 불가능성은 배제되나 공간 변화도 배제되지는 않는다. 생성 소멸의 사라짐이 어떤 것이 공간적 변화의 배제를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e2.3.4.3) 두 번째 논변(fr.8.29-33)은 존재의 자기동일성과 완전성에 연관되어 있다. 존재는 동일한 것이고 또한 동일한 곳에 있다. 이것을 인용문은 “같은 것 안에 같은 것으로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놓여 있”으며 따라서 “확고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존재의 자기 동일함이 이것의 완전한 안정성을 보장한다. 자신 안에 확고히

머물러 있다는 표현은 질적인 변화 뿐 아니라 위치의 변화도 배제되고 따라서 어떤 변화도 결여됨을 증명한다. 인용문의 후반부를 엄격한 증명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e2.3.4.4)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은 존재가 어떤 것도 결여하지 않고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이 때문에(houneken)라는 접속어를 통해 앞의 문장들과 연결되어 있어 앞의 논의의 귀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신 안에 자신으로 머물러 있음은 그것이 어떤 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음을 함축하는 것으로 논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의 존재의 불가분성의 논의에서 존재의 충만함이 불가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불변함에 근거하여 완전함이 논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3.5 구형의 완전한 존재

(q2.3.5.1) 그러나 맨 바깥에 한계가 있기에, 그것은 완결된 것, 모든 방면으로부터 아주 둥근 구형의 덩어리[잘 둥글려진 공의 덩어리]와 흡사하며, 중앙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똑같이 뻗어나와 있는(isopales)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기보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크다든가 조금이라도 더 작다든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같은 것(homon)에도달하는 것을 막을 만한 있지 않은 것이란 있지 않고, 또한 있는 것은 있는 것 가운데 더 많은 것이 여기에, 그리고 더 적은 것이 저기에 있게 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가 불가침이기에. 왜냐하면 모든 방면으로부터 자신과 동등한 것으로서, 한계들 안에 균일하게 있기에.(fr.8.42-49)

(e2.3.5.2) 존재의 표지를 논의하는 마지막 부분은 존재가 구형과 같다는 것을 보이는 논의를 담고 있다. 구형의 덩어리와 흡사하다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흡사하다’는 제한이 있어 바로 물체와 같이 공간상의 연장성을 지니는 것으로 존재를 이해해야 할지 혹은 단지 존재가 모든 방면으로 균형잡혀 있음을 구형에 빗대어 비유하

는 것일 뿐인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어느 입장에 서든 존재가 부분에 따라 더 있거나 덜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을 가능케 할 있지 않음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방면에서 균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3. 엘렝코스(elenchos)

3.1 테스트로서의 엘렝코스

(q3.1.1) 많은 싸움을 담은 엘렝코스[테스트]를 로고스[논변]로 판단[판가름]하라.(fr.7.5-6)

3.1.1 엘렝코스 개념의 역사

(e3.1.1.1) 여신은 자신의 말을 엘렝코스로 표현하고 있다. 이 엘렝코스는 많은 싸움을 담은(polyderin) 것이다. 많은 싸움을 담은 자신의 엘렝코스를 여신은 로고스(logos)를 통해 판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e3.1.1.2) 엘렝코스라는 말은 플라톤의 초기 문헌에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다. 제시된 주장을 캐물음을 통해 검토하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을 이 엘렝코스는 소크라테스에게서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주장의 부정합성을 드러내는 부정적 결과로 끝이 맺어지기 때문에 논박이라는 의미를 띠게 된다. 그러나 이 개념이 처음부터 그리고 항상 논박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e3.1.1.3) 본래 호메로스(『일리아스』 XI, 312-15 참조), 헤시오도스, 테오그니스(1011 참조)에서 이 말은 군사업무나 운동경기에서의 패배에 따른 수치, 불명예를 의미했다. 중성형으로 쓰이던 이 말이 핀다로스에서 남성형으로 쓰이면서(Olympian IV.17-18 참조, cf. Pythian XI.49.) 시험이나 경기(競技)를 뜻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견뎌내면 불명예나 수치를 피하고 나아가 뛰어난이 입증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된다. BC 5세기 바킬리데스의 서정시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시금석이나 시험과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포클레스나 헤로도토스에서는 조사(檢査)나 시험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

며,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한 구절(II. 115)에서는 반박(反駁) 혹은 논박(論駁)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나타난다. 소피스트 고르기아스의 「팔라메데스 변호」에서는 증거나 증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플라톤의 경우에도 elenchos는 논박이라는 의미 외에 캐묻기(cross examination)나 검토(『국가』 VI 534b.)의 의미에서 쓰이기도 한다.(Leshner, 2-9쪽 참조. 이 부분의 elenchos에 관한 논의는 이 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e3.1.1.4) 이런 일련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초기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경우를 포함하여 엘렐코스 개념의 의미가 테스트 즉 시험이나 검사라는 핵심적 의미와 연관됨을 보여 준다. 엘렐코스란 어떤 사람의 명성이 실제와 부합하느냐를 드러내는 시험이며, 이 시험에 견뎌내면 그의 명성 혹은 명성에의 주장은 참된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엘렐코스는 테스트를 이기지 못해 입게된 수치, 불명예라는 의미로부터 테스트나 검사, 그리고 테스트 작업으로서의 논박이나 캐묻기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여신의 명령의 로고스적 성격

(e3.1.2.1) 앞의 단편 7에 나오는 엘렐코스라는 말도 테스트, 시험의 의미로 볼 수 있다.(Gallop, 63쪽 참조. Furley, Leshner의 해당 번역어 참조.) 여신은 많은 싸움을 담고 있는 자신의 테스트들을 로고스로써 판단하라고 말한다. 로고스를 통해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여신의 말에는 상반될 수 있는 두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여신의 말이 명령이라는 사실이다. 여신은 명령한다. 명령하는 언어, 이것은 언어의 가장 시원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 향해진 여신의 명령은 단순히 여신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명심하라는 것이 아니다.(이와 대조적으로 단편 2에서 여신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명심하라고 이야기한다.) 명령은 판단하라는 명령이다. 로고스로써, 판단의 주체, 기준은

로고스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신의 명령은 동시에 자신의 권위에 기대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단은 신의 권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로써 이루어진다. 테스트의 판정에 관한 한 로고스 이외의 권위는 없다. 이 명령은 따라서 신으로서의 권위의 포기의 표명이기도 하다. 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의 내용에 관해서 신 자신이 아니라 로고스가 판정의 권위이다. 명령은 틀림없으나 자신 이외의 다른 권위에 따르라는 명령이다. 포기된 것은 신으로서 여신의 말이 가지는 권위이다. 자신을 따르지 말고 로고스를 따르라는 명령, 자신의 권위를 따르지 말라는 그 언명이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3.1.3 여신의 명령의 신화적 성격

(e3.1.3.1) 그러나 다른 한편 신의 권위는 살아 있다. 명령 속에. 이 권위 아래서만 신은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은 그러나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라는 명령이다. 나를 따르지 말고 로고스를 따르라는 명령. 물론 젊은 이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로고스를 따르라는 명령 자체는 로고스로써 판단될 것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신의 명령이 아직 살아 있는 부분, 로고스를 싸고 있는 신화의 힘이 여전히 작동하는 부분은 바로 이곳이다. 로고스를 따라야 할 이유가 로고스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로고스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신의 소리를 통해 주어지고 있다.

(e3.1.3.2) 여신은 자신의 말이 신에 의해 이야기된 것이기에 타당하다는 신적 정당성의 요구를 포기하고 있다. 신적인 정당성, 신적인 권위의 자리에 새로운 권위가 들어선다. 새로이 들어선 권위는 로고스이다. 자신을 찾아 온 파르메니데스에게 로고스로써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간과 신 사이에 양자를 공히 넘어서는 새로운 권위가 탄생했다. 신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인(theios) 권위가. 새로운 권위가 등장하면서 로고스와 이전의 미토스 사이에 선명한 경계가 그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경계 긋기는 신에 의해, 신의 명령으로 미토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

토스로부터 로고스에로의 이행이 미토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새로운 신적 힘으로 이행되는 사건이 신에 의해 수행되는 장면이 파르메니데스에 의해 보고 되고 있다.

3.1.4 많은 싸움을 담고 있는 말과 새로운 실정적 힘

(e3.1.4.1) 신화 가운데 신의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행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해 보자. 로고스를 따라야 한다는 언명이 로고스로 판단되는 형태가 아니라 신의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로고스가 궁극적인 권위를 지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신의 후광, 신의 권위가 없다면 로고스가 판단자가 된다는 것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의 탄생을 신의 말에 힘입고 있는 로고스의 권위는 신의 권위에 얹혀있는 것이 아닐까? 로고스의 권위는 신의 명령의 실정성에 토대한 것일까? 로고스를 따르는 것이 신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서 오며, 그래서 로고스의 타당성이 신의 명령의 실정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 신의 명령에 힘을 부여하는 실정성은 어떤 성격의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물리적인 힘일까? 위에 인용된 여신의 짙막한 언명 속에서 우리는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e3.1.4.2) 로고스가 해야 할 일은 판단하는 일이다. 무엇을 판단하는가? 인용된 구절에는 엘렐코스가 판단의 대상이다. 여신에 의해 언명된 그 엘렐코스는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여신의 말도 싸움을 거친다. 싸움에서 살아남는 말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싸움을 이길 수 없는 말은 누구의 말도 힘을 가지지 못하고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얹이 성립하는 새로운 경계의 첫째 조건은 그것이 싸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서 참이나 올바른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야 할 것으로서의 규범적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싸움을 거치고 살아남은 실정적(實定的)인 것만이 참의 영역에서건 옳음의 영역에서건 규범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e3.1.4.3) 로고스를 통해 판정되는 이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는 더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의 하나는 싸움을 통한 엘렐코스를 판정하는 로고스의 권능이 단순히 신의 후광에 힘입은 것이기보다는 판정 대상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주어지는 성격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신의 테스트도 일종의 싸움이요, 그 싸움의 판정은 로고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로고스가 신과 인간을 넘어서는 권위가 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그뿐 아니라 로고스를 따라야하는 이유도 신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안 자체의 성격상 피할 수 없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함께 이야기될 수 있다. 로고스의 등장과 함께 신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실정적 힘이 등장하며 이 새로운 실정성은 그 토대가 신의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e3.1.4.4) 엘렐코스가 일종의 싸움으로 그려지고 그 싸움의 결과를 로고스로써 판단하는 경우, 이 판단은 일단 승패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승패의 판단은 판단자의 주관적 견해나 의지가 문제되는 것이기 보다 싸움의 결과에 의해 이미 판단의 방향과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수행된 전쟁의 경우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의 구분은 판정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있을 여지가 없다. 물론 판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도대체 판정의 기준이 무엇이나가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 또는 “싸움”의 경우 이것이 실제 상황일 때 승패는 비교적 분명하다. 싸움이라는 개념이 앞의 인용문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엘렐코스의 경우도 싸움처럼 승패가 문제되며, 또한 그 승패가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일이다. 사람의 삶과 죽음이 걸려있고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는 전쟁에서 문제되는 것은 승패이지 승패의 불명성인 경우는 드물다.

(e3.1.4.5) 여신에 의해 언표된 것이 논변을 통한 테스트이고 그 말을 듣는 젊은이가 로고스로써 이것을 판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테스트가 전쟁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이것의 판정에서

판정을 명하는 신이나 판정하는 젊은이에게 남겨진 자의적인 어떤 행동이나 판단의 여지는 없다. 이미 끝난 전쟁의 승패를 어쩔 수 없으며,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과에서 판정해야 할 수밖에 없듯이, 논변을 통한 테스트에서도, 그것이 전쟁과 같은 것인 한, 승패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가 분명한 것이고 그 승패를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듯이, 로고스의 결정도 논변을 통한 테스트의 결과를 따라가게 되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강제력이 있다. 신이 로고스의 판단을 특별히 따르도록 명령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 로고스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신의 명령에서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일 수가 없다. 판단되는 사안 자체의 강제력이 그것에 권위를 주며, 이 권위는 신의 권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권위이다.

(e3.1.4.6)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판정의 기준으로서 로고스의 권위는 사안 자체의 분명한,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성격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논변을 통한 테스트와 그 테스트의 결과를 판정하는 로고스의 피할 수 없는 성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로고스를 따르는 일, 로고스를 따라야 한다는 점까지도 신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신의 명령이 로고스를 따르는 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의 성격이 로고스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로고스로 판단하는 일에서 왜 로고스를 따라야 하며, 그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신의 명령이라는 외적 권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테스트에 근거한 로고스의 판정이라는 내적 설득(peithō, fr.2.4, fr.1.29)에 근거해 있다. 단편 2에서 여신이 이야기하듯 그것은 설득의 길이며, 이것이 설득의 길인 이유는 진리에 따르기 때문이다.

(e3.1.4.7) 진리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가 이야기되고 있는지는 이미 분명하기보다 밝혀져야 할 사항일 것이다. 싸움에 이긴다는 호메로스 시대의 성공적 인간 활동 모델이 진리 개념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아마도 초기 유럽 정신 형성사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추적하는 실정성 추구 역사로서의 서양 역사에서도 가장 영향이

지속적이고 심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학문의 역사가 문자 그대로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논쟁의 역사이며, 반박(refute)되지 않은 것이 진리라는 입장을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싸움과 진리라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서양 학문의 경우 오늘에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진리와 이에 기반한 설득은 위에서 이야기된 바 논변의 테스트 결과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과 깊이 연관된 것이라는 점은 앞의 우리 논의에 비추어 미리 이야기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텍스트

Diels, H. & W. Kranz [=DK],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Vols. I, II, III, 6th ed., Berlin: Weidmann, 1952, [1st ed.: 1903].

2) 번역 및 주석

김인곤 외 옮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아카넷,
2005.

Cornford, F. M., *Plato and Parmenides: Parmenides' Way of Truth
and Plato's Parmenide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a Running Commentary*, London: RKP, 1939.

Coxon, A. H., *The Fragments of Parmenides: A Critical Text with
Introduction, Translation, the Ancient Testmonia and a
Commentary*, Assen: Van Gorcum, 1986.

Gallop, D., *Parmenides of Elea, Fragments: A Text and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4.

Kirk, G. S., J. E. Raven & M. Schofield [=KRS],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A Critical History with a Selection of Text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st
ed.: 1957].

3) 연구서

Palmer, J. A., *Plato's Reception of Parmenides*, Oxford: Clarendon Press, 1999.

4) 연구논문

김남두, 「좋은 이데아와 앎의 성격」, 『서양 고대철학의 세계』, 서광사, pp. 171-194, 1995.

김남두,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에서 탐구의 길과 존재의 규범적 성격」, 『서양고전학연구』 제17집, 한국서양고전학회, pp. 1-26, 2001.

김남두, 「파르메니데스와 앎의 실정성」, 『과학과 철학』 제12집, 과학사상연구회, pp. 105-122, 2001.

김남두, 「파르메니데스의 자연이해와 로고스의 실정성」, 『철학사상』 제15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pp. 447-469, 2002.

송영진, 「파르메니데스의 시(詩) 단편들」, 『플라톤의 변증법』, 철학과현실사, pp. 22-56, 2000.

윤구병, 「아닌게 아니라 없는 것이 없다: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개념의 분석」, 한국철학회 고전분과위원회 편, 『문제를 찾아서』, 고전철학회 연구논문집 I, 종로서적, pp. 29-43, 1980.

Cordero, N., “Les deux chemin de Parmenide dans les fragment 6 et 7”, in *Phronesis* 24, 1979.

Finkelberg, A., “Parmenides' Foundation of the Way of Truth”,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VI, 1988.

Kahn, C. H., “Being in Parmenides and Plato”, in *La Parola del Passato: Rivista di Studi Antichi*, vol XLIII, 1988.

Leshner, J. H., “Parmenides' Critique of Thinking - The poluderis elenchos of Fragment 7”,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Oxford, 1984.

Leshner, J. H., “Parmenidean Elenchos”, in *Does Socrates have a*

Method? ed., by Scott, G. 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Nehamas, A., "On Parmenides' Three ways of Inquiry", in *Virtues of Authenticity*, Princeton, 1999.

Owen, G. E. L., "Eleatic Questions", *Classical Quarterly* 10,
pp. 84– 102(1960); repr. in *Logic, Science and
Dialectic*, Itaca, 1986.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1a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 제2호 『밀린다팡하』 / 서정형
- 제3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4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5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6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7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8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 제9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10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11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 제12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13호 프레게 『산수의 기초』 / 최 훈
- 제14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1a호 『대학』 / 박성규
- 제2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3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4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 제5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6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7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8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9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10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11호 데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12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13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14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제15호 흄 『인설론』 / 장동익
 제16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제17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제18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제19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제20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제21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혜
 제22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제23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제24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제2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5권

- 제1호 공자 『논어』 / 박성규
 제2호 마명 『대승기신론』 / 서정형
 제3호 황종희 『명이대방록』 / 강중기
 제4호 플라톤 『향연』 / 김인곤
 제5호 흄 『인간지성에 관한 탐구』 / 윤선구
 제6호 칸트 『판단력비판』 / 김상현
 제7호 피히테 『전체 지식학의 기초』 / 김재호
 제8호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 강성화
 제9호 니체 『도덕의 계보』 / 백승영
 제10호 하이데거 『이정표』 / 이선일
 제11호 가다머 『진리와 방법』 1 / 정은혜
 제12호 군텐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 김희정
 제13호 군텐 『세계제작의 방법들』 / 김희정
 제14호 롤즈 『정의론』 / 장동익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 7 호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http://philinst.snu.ac.kr
전 화	02) 880-6223
팩 스	02) 874-0126
인쇄일	2006년 5월 31일
발행일	2006년 6월 5일
출 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